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aekyoungju@earthlink.net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뚜레쥬르 보스톤점 올해안에 오픈한다

중국 유학생 출신의 32세의 비비안 유 대표
미림 식품 자리에는 3호점 오픈, 뚜레쥬르 확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별링턴 H마트를 첫 시작점으로 삼았던 한국
CJ의 뚜레쥬르가 올해 내로 보스톤 다운타운
점을 개장하고 바로 이어 올스톤 점까지 열어
보스톤 점령에 나선다.

보스톤 점령에 나선 뚜레쥬르 보스톤의 선
장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유학생 출신이다. 지
난 7월 별링턴 H마트 소재 뚜레쥬르를 두명의
사업파트너와 함께 인수한 중국 여성 비비안
유(32) 대표가 바로 그다.

유 대표는 “뚜레쥬르 2호점을 보스톤 인근
에 위치한 거버먼트 센터 트레몬 스트리트에 12
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고 밝히고 “올스
톤 하버드 애비뉴 미림이 있었던 자리에 제 3
호점을 계획 중에 있다” 고 말했다. 올해 말로
문을 닫는 미림의 자리에 들어오는 중국계 사
업자가 바로 유대표였던 것이다. 퍼즐의 조각
이 이제 맞춰진다.

유 대표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보스톤 대학

교(BU)에 입학한 평범한 중국 유학생이었다
.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는 유 대표는 “
중국에서부터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유행
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졸업 후 친구들과 한
국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 하곤 했었다” 고
전했다.

뚜레쥬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유 대표의 의
지가 많이 작용했다. 평소 별링턴 뚜레쥬르의
단골이었던 유대표는 “나의 강한 의지로 뚜
레쥬르에 올 인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유대
표는 뚜레쥬르를 인수하기 전 친구 및 현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뚜레쥬르, 카페 베네, 그리고
파리바게트 등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저
울질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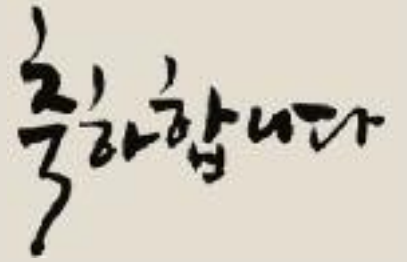
유 대표의 당초 계획은 보스톤 다운타운에
뚜레쥬르 프랜차이즈를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마침 별링턴 뚜레쥬르 애니(Anne) 대표로부
터 인수 제의를 받아 먼저 별링턴 뚜레쥬르 매
장을 지난 7월 인수하게 됐다.



현H마트 뚜레쥬르에 지점 대표 비비안 유 (32) 씨

▶▶2면으로 계속

社 告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

보스톤 코리아가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지
10년입니다.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는 21일 보스톤 코리아는 신
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고마웠던
분들을 초대해 창립 10주년을 기념합니다. 비록
모든 독자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진심어린 감
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

일시 :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Avalon at Lexington Hill

Kline Function Hall

1000 Main Campus Drive

Lexington, MA 02421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 기 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From \$893
ONLY 1 STOP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893는 아시아나항공(국내선 포함) 요금입니다.
출발기한은 2015년 12월 6일까지, 발권기한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여행일정, 이용항공사, 실시간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광고문의

T. 617.254.4654
or 617.903.3010
BostonKorean@hotmail.com



Premier Realty Group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Hans H. Cho,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o@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미 주재 공관들 '20대 총선 재외선거' 등록 시작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중우 특파원 =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등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내 대사관과 총영사관들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세 번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91일간 진행된다. 재외선거 투표 자격은 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영주권자로 분류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유학생과 주재원, 여

행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등록 신청은 현지 공관 방문, 순회 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돼 유권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2차례에 걸쳐 재외선거 등록·신청과 투표소가 마련된 재외공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 7월 인터넷 등록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통해서도 유권자 신청·등록이 가능해졌다.

다만, 재외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와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이번 재외선거에서는 어렵게 됐다.

우편·전자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유권자 신고·등록을 하려면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투표는 내년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기 위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12일 한인타운 대형 마켓과 교회, 지·상사 등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재외선거 참여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재외선거 유권자 신청·등록 첫 날인 이날 오전 10시 현재 23명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했으며, 5명은 공관을 직접 방문했다고 LA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윤재수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신청·등록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지만, 투표는 반드시 투표소인 총영사관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

과기협 제 7회 경력개발 워크숍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현희) 제 7회 경력개발 워크숍이 지난 14일 토요일에 열렸다.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회장 조영석)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고종성 박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한국 독도 수호국대 연대 고창근 위원장과 박창우 서울대 교수가 함께 참석해 독도에 관련된 동영상과 활동내용을 전해주었으며 미국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방문의 기회를 전했다.

특히 이 행사에 과기협 YG의 대학 회장들이 참석해 강사들의 소개와 행사를 돕는 일을 함께 하였다. 이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있는 BIDMC의 배수찬 박사는 "젊은 학

생들의 참여가 뉴잉글랜드 재미 과기협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행사 후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행사장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감사들과 나눌 수 있었다.

과기협 이현희 회장은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과학기술자로서 먼 안목의 계획을 세우는데 훌륭한 조언을 들려주신 모든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과기협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contact@kseane.org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다음 행사로는 12월 12일에 연말파티가 있을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들에게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 1면에 이어서

유 대표는 "나는 별링턴 푸레주르를 찾아온 오랜 고객이기 때문에 푸레주르 제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푸레주르 제품은 품질이 아닌 편안함 아니라 모든 외국인 입맛에 맞는 빵이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나는 푸레주르 제품

과 브랜드를 굳게 믿고 있다"며 "앞으로 보스톤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절대 실망시켜 드릴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가 지난 14 일 토요일 제3 회 차세대 심포지움 을 하버드 법대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민협회 제 3회 차세대 심포지움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균)가 지난 14일 토요일 제3회 차세대 심포지움(지도자 양성)을 하버드 법대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 박윤주 부 총영사,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지역 단체장 및 주요인사 그리고 차세대 학생들을 포함해 25여명이 참석해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경험담과 지혜를 함께 나누었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차세대 심포지움을 포함해 시민협회는 그간 한인미국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은 물론 차세대들을 위한 정치인턴십, 차세대

영 리더스 심포지움 등 많은 활동을 벌여왔고 특히 차세대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정치인, 법조인, 학계,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재선된 태기 찬 하원의원(MA State Representative), 그레이스 리 전 재무차관(Former MA State Treasury), 벤 스미스 텍사스 판사 (Judge of Texas District), 황우성 (Harvard Medical School) 등 유명 정치인과 학계, 법조계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의 차세대 지도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이어 나갔다.

그레이스 리씨는 이날 심포지움에서 “LA에서 자라면서 LA 폭동이 한

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어린 나이에 한인들을 위해 리더가 되고 싶었다”며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들이 한국을 위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날 벤 스미스 텍사스 판사는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한인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자라 온 것이 내 인생의 큰 자량이다”며 한인 젊은 학생들에게 자극과 큰 격려를 전했다.

시민협회 주관의 행사나 소식은 홈페이지(www.kacl-ne.org)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를 통해 접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17기 보스톤 협의회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보스톤 지부(회장 한선우) 임원단들이 지난 10일 화요일 하버드 소재 Faculty Club 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 한선우 민주평통, 남진병 한인회 문화체육 부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했다.

한선우 회장은 “앞으로 평화통일의 공감대 구축 그리고 화합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보스톤 한인회와 함께 상부상조하며 일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한인회회장은 “앞으로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와 공조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민주평통의 적극적인 한인사회 활동을 요구했다. 한윤영 수석고문과 이동문 부회장은 축배로 “이번 회장단의 체계는 다른 때와는 달리 큰 차이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서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보스톤 지부 임원단들이 지난 10일 화요일 하버드 소재 Faculty Club 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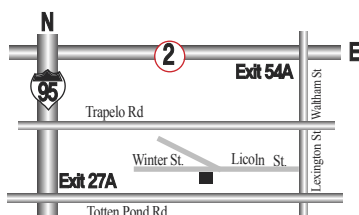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 백지은(좌), 텡스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운 교수(우)

텡스대 이성운 교수 북한 인권 정책 컨퍼런스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텡스(Tufts)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운 교수가 지난 17일 목요일 오후 1시 텡스 대학교 플래처 스쿨 Cabot 702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 교수 외 북한 인권위원회(HRNC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Engagement) 이사 그레그 스카라티우씨와, 프로젝트

담당 아만다 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 백지은 씨 등이 참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으며 뉴욕 총영사관, 텡스 법학생들 외 총 20명이 참가했다.

특히 컨퍼런스에 스피커로 참가한 백지은씨는 한국의 국민 통일 방송의 라디오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방송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원이다. 백지은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 시민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을 현

장체험 및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가한 하버드 법대 학생 이씨는 "북한에 대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흥미롭고 이런 컨퍼런스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북한의 인권 정책, 보건, 권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초빙되어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jham@bostonkorea.com

북한 인권 한반도 평화 좌담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7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북한 인권 정책 위원회(ANKHR)가 웰슬리 대학의 LWC 티쉬만 커먼스에서 '여성, 군사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테리 박교수의 진행으로 시작해 게스트 스피커 크리스틴 안(여성 크로스 DMZ 설립자 및 이사), 백지은(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 이자히 스탠 필드(미국 이산 가족이사회 의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각 스피커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온 배경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정책과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작무용가인 이도희 씨가 한국 창조의 신화 '마고'의 공연을 선보여 제주도의 역사를 엮어 냈다.

bostonkorea@hotmail.com



북한 인권 정책 위원회(ANKHR)가 지난 17일 웰슬리 대학의 LWC 티쉬만 커먼스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위 아 보스턴' 행사에 바네사 윌리엄스 공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턴 시에서 주최한 제 10회 위 아 보스턴(We are Boston Gala) 행사가 지난 17일 화요일 오후 6시 페어몬트 카플리 플라자 호텔(Fairmont Copley Plaza Hotel)에서 열려 1,000여명의 소수민족 시민들이 참석했다.

‘위 아 보스턴 갈라’ 축제는 보스턴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을 격려하고 민족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다. 700여 명이 참석했던 지난 해 행사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며 행사도 웅대했다.

축제에서는 각 소수민족나라들의 공연과 세계 각국의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어 행사의 다채로움을 장식했다.

특별히 이번 축제에는 10주년을 기념해 바네사 윌리엄스가 초대대 라이브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바네사 윌리엄스는 “보스턴에서 소수민족의 단합을 위해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소수민족 가족에서 자란 여자로서 더없이 큰 행복이다” 고 전했다.

이어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의 리더쉽 어워드 시상식이 이어졌다. ‘위 아 보스턴 갈라’에서는 매년 이민사회의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상을 전달하고 있다.

월시 시장은 “매년 보스턴 도시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며 “보스턴은 미국의 이민도시 중 하나이기에 다함께 하나가 되어 발전 하는 도시가되자” 고 전했다.



이번 위아 보스턴 갈라 이벤트에 초청된 바네사 윌리엄스(우)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좌)



보스턴 시에서 주최한 제 10회 위 아 보스턴(We are Boston Gala) 행사가 지난 17일 페어몬트 카플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PSP 서비스의 마이크 드와이어 씨는 “매년 ‘위 아 보스턴 갈라’ 행사에 참가하지만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하

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이다” 고 전했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재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안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제 14회 NE 어린이 동요합창제 개최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 이사장 박신훈)가 오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브루크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제14회 어린이 동요합창제'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된 동요를 널리 알리고 맑고 고운 동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이 동요합창제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NAKS-NE) 한국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는 각 지역 한국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각 학교별로 최대 2팀(1팀이 한국씩) 씩 참가할 수 있으며 1팀 참가시 2곡까지 가능하다. 전래 동요, 창작 동요, K-pop 및 기타 한국어로 된 모든 곡들은 발표곡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행사 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

회 홈페이지(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의회 회장(soonyhan03@gmail.com) 혹은 박지예 총무(jiae@livee.com)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2월 5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제1기 독도아카데미 USA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14일 금요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한 '제1기 독도아카데미 USA'에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정책에 맞서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집행위원장은 보스톤과 로드 아일랜드 지역에 독도아카데미 USA를 설립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 대

학교, 브라운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독도주권을 강의했다.

이어진 한인학교 교사 50여 명의 독도수호 간담회에서는 독도 수호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독도 현지 답사를 추천하며 교사들의 독도 방문교육을 소개했다.

독도수호국제연대에서는 또한 한미정치력신장연대(회장 김성혁)의 후원으로 하버드 교수회관에서 하버드 대학교, MIT 등에서 활동 중인 역

사학자, 독도전문가, 보스톤 지역 인사 등과 함께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선포하는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역사에 근거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독도 수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독도수호국제연대는 일본의 중장기적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2006년 11월 창립된 순수 민간외교 비영리 사회공헌단체로 독도아카데미를 통해 지금까지 약 5천 명에게 독도 주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4일 금요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제1기 독도아카데미 USA'를 개최했다

시리아 난민구호 모금 자선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의 정의평화환경위원회(김정선장로)와 보스톤 화음챔버가 공동주최하는 '시리아 난민구호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브루크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들어오는 자선기부금과 티켓판매 전액이 PC (USA)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를 통해 난민구호기금으로 전달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씨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계절과 Haydn Symphony No.44 (애통)가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시리안 올도닥스 교회(Syrian Orthodox Church)의 라작 시리아니(Razek Siriani) 집사가 시

리아 상황에 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스톤화음챔버는 음악회를 통해 사회봉사의 창단취지를 갖고 매년 두번의 정기연주회외에 단원들의 재능기부로 병원봉사연주, 자선음악회(탈북난민, 위안부, 아프리카 어린이 기아, 북한 결핵 어린이돕기, 세월호 추모)를 가져왔다.

행사일정
날짜: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티켓: \$10(Donation Recommended)
bostonkorean@hotmail.com

전통 예술 나성숙 작가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서울 산업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나성숙 교수 및 작가의 전시회가 뉴햄프셔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나성숙 작가는 전통미술의 문양과 색채, 특징적인 기법을 통해 귀얄의 맛과 느낌을 세계의 화풍으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나 작가는 색옷칠, 나전, 난각, 금, 삼베 등의 특별한 재료를 통해 역사의 전통성을 재현하고 있다.

나성숙 작가의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수레아트 갤러리(11 Sagamore Road, Rye, NH 03870)에서 열린다.

오프닝 리셉션: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7시
jham@bostonkorea.com

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레아트 갤러리 웹사이트(sooryeartgallery.com)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sooryeartgallery@gmail.com로 하면 된다.

전시일정
일시: 2015년 12월 2일~12월 20일
장소: 수레 아트 갤러리 (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오프닝 리셉션: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7시
jham@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제10회 U.S. Masters Open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다

제 10회 US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회장 정제형)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700여 명의 태권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태권도 지도자 및 지역 단체장 등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U.S. Masters Open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를 성대하게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김경원 보스톤 한인 회장, 김도운 한인회 사무총장, 이광석 영사, 안병학 월드옥타회장, 김용범 교수 (브릿지포드대학 태권도 학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김도연씨의 가야금 연주에 맞춰 원숙경씨의 애국가 독창으로 대회의 개막을 장식했다.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 정제형 회장은 “이번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준 협회 임원들과 각 도장 사범들, 그리고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노력해준 심판진 이하 진행요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하버드 대학교 폭파 위협 학생 대피 소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16일 월요일 정오(12시 22분)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커뮤니티 이메일에 학교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위협 이메일이 접수되어 학교 정문과 건물이 폐쇄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보스톤 글로브는 “하버드 대학교 과학 센터 건물 시버 홀, 에머슨 홀과 테이어 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상 경보에 따라 대피했다” 고 전했다.

각 건물들을 탐색한 결과 하버드 대학 측은 오후 1시 50분 성명서를 통

해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는 “하버드 캠퍼스의 완전과 보안은 학교의 최우선이다” 며 “현재 파리와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에 이어 이런 사건들이 더 큰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캠브리지 경찰 대변인 젤미 워닉씨는 “폭탄 협박 조사의 조치로 하버드 야드 정문 입장 역시 금지했다” 고 밝혔다.

폭탄 탐색은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고 폭탄 경고 위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jham@bostonkorea.com



지난 월요일 하버드 대학교 이메일에 학교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위협 이메일이 접수되어 학교 정문과 건물이 폐쇄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했다

11월은 2016년 건강보험 가입의 달

보스턴봉사회 제공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자가 메디케어 파트-C, 혹은 파트-D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는 열린 가입기간이다. 이 기간 중에 현재 가진 보험의 2016년도 보험료와 보험혜택, 자주 쓰는 약이 보험에 포함되었는지와 코페이 액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만족하지 않다면, 이 기간 중에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다. 현재 보험이 만족스럽다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험이 2016년도에 자동 계속 가입되게 된다. “메디케어 & 당신 2016”이라는 책자의 부록에 여러 보험들이 설명되어 있다.

한때 2016년도 메디케어 파트-B의 보험료가 50% 인상될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추면, (1)현재 파트-B에 가입되어 있고, (2)받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되고, (3)소득이 싱글은 \$85,000, 부부는 \$170,000 미만이면, 보험료 인상이 없다. 따라서 2016년 보험료는 2015년도 같은 \$104.90가 된다. 그러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도 있다. 다음 3가지 즉, (1)소득이 위의 경우보다 많거나, (2) 2016년에 메디케어에 새로 가입하던가, (3) 메디케어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2016년 파트-B 보험료가 2015년도보다 각각 18% 인상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오바마케어보험의 열린 가입기간은 12

월 15일까지다.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 미국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중저 소득가구는 보험료와 의료비용에 대하여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가입을 권한다. 현재 오바마케어 보험을 갖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MA 주 정부가 현 보험의 2016년도 신규보험료 등에 관한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검토한 후 현 보험이 적절치 않으면 이 기간 중에 다른 보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2016년에 그대로 계속된다. 열린 기간 중에 신규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보스턴봉사회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사이트 주소는 www.baasi.org 이다. 한인의 관심이 큰 주제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소셜시큐리티, 매스헬스, 세금보고, 시민권신청 등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가입 지원서를 다운 받는 링크도 있어 가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오바마케어 지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오바마케어에 관한 한국어 비디오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권시험문제와 답도 알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msn.com, google.com, yahoo.com 검색창에 “baasi.org” 로 검색하면 된다. 혹은 인터넷 주소칸에 www.baasi.org를 쳐서 넣어도 된다.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 발레단의 연말 할러데이 공연 '호두까기인형(Nutcracker)' 이 오페라 하우스(The Opera House)에서 오는 27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연된다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 호두까기 인형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발레단의 연말 할러데이 공연 '호두까기인형(Nutcracker)' 이 오페라 하우스(The Opera House)에서 오는 27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연된다.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의 낭만파 작가 호프만(E.T.A. Hoffmann)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을 바탕으로 한 발레로 2막으로 구성되어 약 2시간 동안 공연된다.

'호두까기 인형'의 티켓 가격은 \$60~\$400까지 날짜에 따라 프라임(prime)과 논프라임(Non-Prime)으로 가격이 달라지며, 가족 혹은 그룹 패키지나 특별 가격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의 티켓 구입은 www.tickmaster.com 혹은 보스톤 발레단 홈페이지(www.bostonballet.org)를 참조하거나 617-931-2787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장은 보스톤 다운타운에 있는 오페라하우스(Opera House)로 주소는 539 Washington Street Boston, MA 이다. "T"를 이용할 경우는 그린라인 Boylstone역을 이용하거나 레드라인 Park St. 역, 혹은 오렌지 라인 Downtown Crossing역을 이용하면 된다.

'호두까기 인형'은 보스톤에서 유명한 공연이기에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jham@bostonbkorea.com

올 겨울 스키 레슨 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이맘때 즈음 보스톤에는 겨울을 맞아 스키 레슨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부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겨울 스포츠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하는 부모들도 있다. 스키장에 가면 꼬마 아이들도 스노우 보드와 스키를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스키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이론들과 장비들을 알아보자.

스트레칭 & 준비운동

겨울 스포츠는 특히 준비 운동이 필요한 스포츠이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스키를 타면 관절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기 쉽다. 장비를 착용하기 전 약 1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준비운동을 해야 안전하다. 준비 운동만 제대로 해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보호장비

스키 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이다. 스키나 스노보드 부상은 보호장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장비 중에서도 헬멧과 장갑은 기본이며 스노보드의 경우는 팔꿈치, 팔목,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장비를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하고 부츠 같은 경우 역시 몸에 딱 맞는 사이즈로 장비해야 한다.

스키 플레이트를 구입할 때에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카빙스키'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대회전용'이나 '회전용 스키'를 구입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스피드와 대회전을 좋아하는 스키어의 경우라면 대회전용을 선택하고 숏턴(short turn)을 좋아하는 스키어는 회전용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인딩 구입 시 이탈 방향의 다양화된 제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의 계수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몸무게, 스키할 주 타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바인딩은 엄격한 안전 검사를 통과해서 나오는 만큼 안전상 문제는 고급모델이나 저급모델이나 별 차이가 없다. 부가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플레이트와 부츠에 맞춰서



적당한 바인딩을 선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여름철 모래사장의 햇빛 반사율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다. 스키장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를 경우 피부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자외선을 차단해줄 고글, 마스크, 모자를 이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돌아오면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고, 팩을 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유지해줘야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레벨 맞추기

스노보드는 스키에 비해 수직방향으로 넘어지기 쉬워 관절 및 골반, 척추 골절 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부상들은 오랫동안 누워있어야 하거나 자칫하면 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이므로 수준에 맞는 코스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 질 때 주의점

스키나 스노보드를 잘 타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은 크게 넘어져도 큰 부상 없이 금방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경우에는 무릎을 최대한 굽히고 눈과 엉덩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만든 후 엉덩이부터 넘어지면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먼저 바닥에 대면 손목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할 점이다. 스노보드의 경우에는 뒤로 넘어질 때 자세를 낮추면서 엉덩이와 등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지고 팔은 옆으로 벌리거나 배 쪽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이 부상을 막을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변 임대 주택을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워드려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 인근 아이스링크 매력 알아보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겨울에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겨울 액티비티가 여러가지다. 그 중 아이스 스케이팅은 나이 연령 상관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특별히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 중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영하는 아이스링크만 몇 십 개다. 가까운 아이스링크를 매사추스주 웹사이트 (<http://www.mass.gov/eea/agencies/dcr/massparks/recreational-activities/ice-skating.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스링크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끼리 즐길 수 있으며 연인들의 로맨틱 장소이기도 하다. 보스톤 주위에 많이 알려진 아이스링크들을 알아보자.

▶프로그 폰드 아이스링크

The Boston Common Frog Pond, Boston, MA 02108
617-635-2120
bostonfrogpond.com
보스톤커먼 가운데 위치한 프로그 폰드(Frog Pond)는 겨울에 아이스링크가 개장되어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찾는 곳 중 하나다. 보스톤커먼의

아름다운 겨울 모습을 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어른은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를 합해 \$15이며 58인치(147cm)이하 어린이는 스케이트 대여료만 내서 \$5이다. 물품 보관함 이용료는 \$2이다. 눈폭풍으로 인해 개장 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보스톤 하버 호텔 아이스링크

Rowes Wharf 'Winter on the Wharf'
70 Rowes Wharf, Boston, MA 02110



(617) 439-7000

보스톤 다운타운 인근 아틀란틱 길에 위치한 보스톤 하버 호텔은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변신해 많은 관광객들과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스톤의 겨울 바다 전망을 바라보면서 스케이트를 타기 원하는 경우 보스톤 하버(Rowes Wharf) 호텔 아이스링크를 추천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입장료 어른 \$10(대여료 \$10), 어린이 \$5(대여료 \$8)이며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에 오픈한다.

▶패뉴일 홀 아이스링크

Faneuil Hall Marketplace Icerink
4 S Market St, Boston, MA 02109
(617) 523-1300
보스톤 퀸마켓 옆에 위치한 패뉴일 홀 마켓플레이스의 겨울은 아이스링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겨울에 보스톤 프리덤 트레일과 먹거리 장터, 쇼핑 외에 아이스링크와 함께 폴코스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패뉴일 홀 아이스링크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달 간 짧게 영업한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영

업을하며 주말에는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입장료는 어른 \$5(대여료 \$5)이며 어린이는 \$3(대여료 \$3)이다.

▶노스 엔드 스테리티 아이스링크

North End Steriti Icerink
561 Commercial Street, North End, Boston
617-523-9327
노스 엔드에 위치한 스테리티 아이스링크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노스 엔드의 숨겨진 아이스링크다. 스테리티 아이스링크에는 보스톤 인근 대학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나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모습도 가끔 볼 수 있는 아이스링크이다. 다른 아이스링크를 한가하게 즐기고 싶을 경우 찾아 올만한 장소이다. 스테리티 아이스링크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5의 대여료를 받고 있



다. 오는 26일에 영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초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사우스 엔드 머피 메모리얼 파크 아이스링크

South End Murty Memorial Park Icerink
1880 William J Day Blvd, Boston, MA 02127
(617) 269-7060
사우스 엔드에 위치한 머피 메모리얼 파크 아이스링크는 작년에 새롭게 확장된 링크이다. 작년 확장공사를 통해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된 머피 메모리얼 파크 아이스링크의 인기는 대단했다. 다만 주말에는 이 링크에서 스케이트 대여가 불가능하다. 오는 26일 링크 오픈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올 겨울 보스톤 주위에서 최장시간의 아이스링크 영업을 하는 링크이다.
보스톤 주위에는 이 밖에 많은 아이스링크가 자리잡고 있으며 하버드 스퀘어 아이스링크, 캔달 스퀘어 아이스링크 외 매사추세츠주의 웬만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아이스링크를 찾아 즐겨보자.
jham@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질환
- 수면, 만성피로, 두통, 메니에르 증후군
- 비만, 당뇨, 고혈압, 각종 스포츠 손상
- 관절염, 류마티스, 비염, 축농증
- 호흡기에, 변비, 위장장애, 대장염 등
- 골다공증, 백내장, 안질환, 미용적 상담
- 임산부 출산 후, 산후유증, 미용
- 가정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건강관리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로건 공항에 차량 5천대 주차공간 확대 계획

공항 이용자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
블루라인과 연결되는 도보 통로도 신설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스포트(Massachusetts Port Authority)에서 로건 국제 공항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 확장을 위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로건 국제 공항과 MBTA 블루라인을 연결하여 여행객들이 전철역까지 도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토마스 글린 매스포트 CEO는 로건 공항에 주차 공간을 늘리고 전철역과 연결되는 통로를 신설하려면 수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주차장 확장 공사와 통로 연결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공식적인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글린 CEO는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공항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로건 공항 이용자는 3,160만 명이었다. 이전 해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매스포트에 따르면 로건 공항의 주

차 공간은 매년 늘어나는 승객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행 성수기에는 로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매스포트는 로건 공항에 차량 5천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로건 공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 18,415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16,200대만이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 매스포트는 여행 성수기에 발레 파킹을 도입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전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건설하는 계획은 국제선 터미널 확장 공사의 일부분이다. 현재 이 공사는 1억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며 201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로건 공항은 2006년부터 꾸준히 직항 노선을 유치해 현재는 전세계 30개 도시에 직항으로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로건 공항에는 차량 18,415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지난 겨울에는 폭설로 전철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행되는 일이 많았다

보스톤니안, MBTA 겨울 준비에 회의적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 시민들은 올해 겨울에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정부가 겨울철에 전철과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만이 MBTA가 작년 겨울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대중교통을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7%의 응답자가 MBTA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매사추세츠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MBTA는 작년 겨울 같은 폭설이 오더라도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8억 3천만 달러를 들여 겨울용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을 교육 시키고 있다.

프랭크 드파올라 MBTA 총책임자는 “올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겨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紅蔘
KOREAN RED GINSENG

추수감사절 맞이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대잔치
11월 29일(일)까지

잔치 1

홍삼톤 골드/마일드 화애락추
10% OFF

잔치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FREE GIFT

우리아이 평생면역

홍이장군 아이패스

자녀제품 구입시
아이키커 2set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781-238-0303**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베이커 주지사, 시리아 난민 매사추세츠에 들이지 않겠다

이민 그룹들의 강력한 반발 사
이민 및 난민 관련 변호사들...
주지사는 난민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6일 파리 테러공격 이후 일고 있는 안보 우려에 따라 시리아 난민들의 매사추세츠 정착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 외 약 12명의 주지사들도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날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팅스기빙 오찬에 참석키 바로 직전 주청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베이커는 지난 9월 시리아 난민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파리 테러가 터지자 이같이 16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루이지애나주 바비 진달 주지사는 시리아 난민 유입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이 시리아 난민 유입에 반대를 천명한 주지사들은 대부분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들이었지만 뉴햄프셔주의 매기 하산 주지사는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정부가 난민들을 신원점검이 철저하게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난민들의 정착제공은 파리의 대규모 테러 공격과 베이루트

의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상당한 논란이 되어왔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여전히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내년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에 대해 "미국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G20 정상회담에서 천명하며 난민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는 독일 등 수만명을 수용하는 유럽 국가에 비해 턱없이 작은 편이다.

지난 2011년 이래 미국에는 2,159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됐으며 이중 72명이 매사추세츠에 정착했

다. 1년 후 이들 난민들은 신원정보 점검을 마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며 5년 후에는 시민권도 획득이 가능하다.

연방법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서 매년 난민의 승인 숫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및 비영리단체들과 연계하여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의 반대에 대해 이민 및 난민 관련 변호사들은 1988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난민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버드 법대 헌법학자인 로렌스 트라이브 박사는 "매사추세츠 또는 다른주는 결코 시리아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잡기거나 또는 수용해야 하는 한 몸이다"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6일 파리 테러 공격 이후 일고 있는 안보 우려에 따라 "시리아 난민의 매사추세츠 정착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시스 몰튼 의원

베이커 주지사와 몰튼 연방의원 난민두고 설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미 연방 하원 시스 몰튼 의원이 17일 시리아 난민 매사추세츠 유입을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공화당 소속의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16일 파리 테러 공격 이후 시리아 난민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자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 소속 몰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주지사가 난민들과 테러범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기자들이 17일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묻자 베이커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몰튼 의원처럼 진지한 사람이 바로 당파적 논리를 편 것"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주지사는 "몰튼 의원이 나의 성명서 전부를 들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랬다면 결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쏘아 부쳤다.

베이커 주지사는 16일 마음 편하게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연방 정부 차원의 난민 검증 절차가 이뤄질길 원한다며 현재로서는 난민 유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샐럼 지역구 민주당 연방 하원 몰튼 의원은 베이커의 당파적 논리라는 발언을 듣고 또 다시 트위터에 "미국인으로서의 가치와 해병대로서의 경험은 결코 당파적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지사는 좀더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온건한 베이커는 미국내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 중에서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가장 적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지사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번 시리아 난민 거부 발언으로 인해 미국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의 태도와는 달리 보안 점검은 강화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받아들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마음과 문을 전쟁을 피해 중동을 탈출한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열어잠궈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15 YEARS
ARLINGTON MR.SUSHI

순두부, 일본 사골 라멘
Spicy Soft tofu, japanese Ramen

열큰 순두부, 사골국물로 맛을 낸 구수한 MISO KAKUNI RAMEN



TEL (781) 643-4175

\$5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3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3 MASS AVE. ARLINGTON, MA. 02176
TEL 781-643-4175

\$10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5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 643 4175

"다음은 뉴욕"...IS, 뉴욕 도심 활보 자폭테러범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파리 테러를 벌인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이번에는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요원이 미국 뉴욕 중심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새 동영상 공개하면서 뉴욕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1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IS가 최근 공개한 약 6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프랑스 파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모습이 주로 담겼지만, 뉴욕의 노란색 택시와 타임스퀘어 광장, 맨해튼의 해럴드 광장 등도 비친다.

동영상에는 또 한 남성이 자살 폭탄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자살 폭탄을 가죽 재킷에 채운 뒤 폭탄 스위치로 보이는 것을 손에 쥐고 맨해튼 중심가인 타임스퀘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아랍어로 "십자군에 가담한 국가들은 프랑스처럼 신의 뜻에 따라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는 워싱턴 DC를 중심에

놓고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한층 높아진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뉴욕 경찰은 또 위기대응사령부(CRC) 소속 경찰을 주요 지점에 증원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영상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지만, 뉴욕 시가 테러의 첫 번째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테러 감시단체인 시테(SITE)는 "뉴

욕 장면이 지난 4월 배포된 영상에서 편집된 것"이라며 "IS가 뉴욕시를 테러 대상으로 노려왔던 만큼 이번 동영상에 공포를 가중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 동영상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IS가 계획하는 테러가 이것뿐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yna.co.kr



뉴욕 타임스퀘어를 경비하는 미국 경찰

미국 성인 17%만 담배 피운다, 역대 최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6.8%만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15일 발표한 '미국 흡연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성인의 흡연율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무려 20%나 감소한 것이다. CDC가 성인 흡연실태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흡연자들이 하루에 피우는 담배 수는 평균 13.8개비로 나왔다. 이는 2005년 16.7개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흡연자들을 분석해보면 저학력자, 저소득층, 동성애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흡연율은 12.9%에 그친 반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29.1%였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의 흡연율은 27.9%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흡연율은 43%로 조사됐다.

아메리칸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의 흡연율도 29.2%로 높게 나왔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흡연율은 23.9%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65년으로 미국 성인 42.4%가 담배를 피웠다고 CDC 측은 전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연방정부 소유 주거건물과 그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칙제정안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주택도시개발부는 연방정부 산하 주택관리공사들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건물에 대해 건물 내부와 건물로부터 약 7.6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드는 내용의 규칙제정안을 발표

jongwoo@yna.co.kr

오바마 "하원 '난민거부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난민수용금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을 강행할 방침임을 재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화당이 발의한 난민수용금

지 법안은 '불필요하고 비실용적인 조치'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일부를 돕기 위한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이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 법안이 미 국민에게 의미있는 안전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도주의

적이며 국가 안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 프로그램의 이행을 막거나 지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연방수사국(FBI)·국토안

보부(DHS)·국가정보국(DNI) 등 관련 당국이 미 의회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법안 표결은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시리아 난민 수용을 막으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난민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초점은 여성과 아이, 고문 생존자 등 극도로

취약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려 는 것도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 방침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enpia21@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이메일: sunautobody@yahoo.com

COLDWELL BANKER
APRIL JOHNSON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학군 좋은 보스턴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금리인상 '얇고 단계적으로'...다 올려도 과거보다 낮다

FOMC 회의록에서 드러난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경로

(서울=연합뉴스) 이 울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얇고 단계적으로 진행돼 모두 올려도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일 공개된 10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0~0.25%의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연준은 다음 달부터 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다음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68%를 기록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이 전날 공개한 10월

FOMC 회의록에는 금리인상 재개 이후 경로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단서가 포함돼 있다.

먼저 금리인상 속도는 예외적으로 얇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FOMC 위원들이 금리결정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균형실질금리(실업률이 꾸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정금리)가 최근에 거의 0%였다는 브리핑을 했다.

균형실질금리는 경제가 강해지면 단계적으로 오르겠지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며, 더딘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는 계속 경제성장과 금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연준은 내다봤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브리핑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감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선 수십 년간에 비해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직전 금리 인상기였던 2004~2006년 3년간 17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해 1.0%였던 기준금리를 5.25%로 4.25%포인트 끌어올린 바 있다. 미 연준의 중립 기준금리는 4.0%다.

FOMC는 회의록에서 "참가자들은(금리인상) 정책 적용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곧 시작하면 앞으로(금리인상) 정책의 궤적은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FOMC의 토론이 단기금리전망에서 장기금리전망으로 넘어가자 불길한 전망이 나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년 안에

새로운 충격에 직면한다면, 다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몇몇 참가자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 추가적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FOMC의 10월 회의록 공개 이후 CME그룹의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68%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회의록 발표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미국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은 0.87%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yulsid@yna.co.kr



미 연준 외관

미 연준 회의록 "다수 위원, 12월 금리인상조건 충족 예상"

부진한 글로벌경제 악영향·성급한 금리인상 우려 위원은 소수 그쳐
'매파' 연은행장들 잇따라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권자 중 다수가 오는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만큼의 경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준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다수의 참가자(FOMC 위원)는 고용시장과 물가 조건이 다음 회의(12월 정례회의) 때까지 대체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비해 "12월 회의 시점까지 발표될 정보만으로는 12월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을 뒷받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FOMC 위원은 "다른 일부"에 그쳤다.

연준은 지난달 정례회의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준은 지난 9월 회의 때 답았던 "최근 있었던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이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했고,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지난달 성명에서는 제외했다.

대신 연준은 "다음 회의에서(연방기금금리) 목표치의 인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난달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세계 경제가 미국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회의록에는 "대부분의 참가자(FOMC 위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제·금융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져 왔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해외에서의(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FOMC 위원은 "두어 명"에 그쳤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내부에서 이런 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황은 만약 지난 10월의 새 일자리 증가량 같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경제 지표들이 다음 달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된다면, 약 7년 간 이어져 온 '제로금리'가 다음 달에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연준은 이미 "다음(12월) 회의에서(연방기금금리) 목표치의 인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통화정책 결정문에 담았다.

이날 발표된 회의록을 보면 '다음 회의'라는 문구를 성명에 담은 과정에서도 FOMC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 문구를 성명에 넣는 일을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회의'라는 문구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너무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 사람은 "두 명"이었다고 회의록은 기술했다.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량 이외에도 이달에는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풀이되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됐다.

대표적인 지표가 전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지난달에는 전체 CPI는 물론,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CPI도 나란히 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여건들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연준 고위인사들 가운데 통제 불가능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매파' 인물들이 잇따라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리) 테러가 경제에 미칠 지정학적 충격은 일시적"이라거나 "고용시장에서 지연요인(slack)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래커 은행장은 FOMC 의결권을 가

진 정위원 가운데 지난 9월과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반대한 사람이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경제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안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그동안 덜 강조해 왔던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역시 록하트 은행장과 같은 강연회에서 금리인상이 "경제가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신호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미국 국채선물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이번 67.8%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초 집계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사이에 머물렀다.

smile@yna.co.kr

골드만 삭스 "미 경제성장, 내년에 소비만으로 뒷심 부족"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경제는 내년에는 소비만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가 18일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전한 골드만 삭스 보고서는 지난 4개 분기 가운데 3개 분기의 성장이 모두 소비에 의해 견인됐다면, 이는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인 수출과 투자 및 재정 지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만 삭스의 자시 팬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성장의) 전통적 견인차인 내수 지출이 버티지 못했으면, 지난해 미국의 성장이 훨씬 더 부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견고한 임금의 뒷받침으로 호조를 보여(지난해) 성장이 평균치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것이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팬들은 "비록 소비 전망이(여전히) 밝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만으

로는 내년 성장이(계속) 평균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데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골드만 삭스는 이와 관련, 내년의 미국 소비 지출 증가율이 2.5~2.7%로 앞서 예상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팬들은 "임금 상승세가 견고하게 지탱되는 한, 소비도(계속) 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그간 소비의 뒷심이 돼온) 저유가와 부의 효과, 그리고 자동차 판매 호조

가 내년에도 버팀목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에 실질 소득 증가 폭도 꾸준한 인플레이션과 유가하락 압박 완화 탓에, 올해보다 주춤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팬들은 따라서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소비 외의 다른 분야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ksun@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불백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불백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 11:30AM~12:00AM
10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Map Information

1. 東門外 (Dongmenwai) (near 100 Prospect St.)
2. 東門外 (Dongmenwai) (near 100 Prospect St.)
3. 東門外 (Dongmenwai) (near 100 Prospect St.)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붙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샐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실어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젤 비타민C.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문-안-박' 제안에 야 술렁...반발 기류 · 유보적 입장 혼재

박지원, 폐북에 "새로움 아니라 같은 내용 반복" 일침
오영식 · 주승용 등 최고위원은 부정적...집단 반발 예상
비주류 모임, 논의 후 입장 표명...천 "혁명적 변화" 주문

(서울=뉴스1) 장용석, 박응진,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은 18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 대표·안철수 전 공동대표·박원순 서울시장) 총선 임시지도부' 구성에 대해 일부는 반대 의사를, 일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표의 광주 제안은 새로움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또한 문 대표가 오늘 신당 창당준비위를 구성한 천정배(창당준비위) 위원장에게 통합을 제안한 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한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문제를 지적한 당내 의원들의 고언을 불만불평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처사로 취급한 것은 당의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 처방도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요동치는 민심을 직시하고 승리를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문안박 총선 임시지도부와 최고위의 관계 설정, 이번 제안이 나오기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임시지도부가 구체화될 경우 집단 반발 할 태세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문 대표의 제안에서 '대표 권한을 나눌 용의가 있다'는 것이 앞서면서 '혁신과 통합'을 위한 말 그대로의 '희망스크림'이 아니라 또 다른 지분 나누기, 권력나누기가 아니냐라고 곡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이러한 제안이 또 다시 최고위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뤄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권한과 진퇴가 당사자들의 의사나 협의 없이 언급되고 있

는 상황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최고위원들)는 별도로 뽑힌 것이다. 1,2,3,4,5등으로 뽑힌 게 아니다. 물론 문 대표가 물러나면 정치적인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상 그건 아니다.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들은 입장 표명을 미루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내 주류-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7인모임은 이날 회동을 갖고 7명 의원 전원이 안 전 대표와 조속히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또한 안 전 대표와의 회동 뒤 문 대표와도 면담해 당 화합을 촉구할 예정이 다.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의 문병호 의원도 통화에서 "그건 좀 더 고민해서 답을 해야한다"며, "19일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 소속 송호창 의원은 통화에서 "이때까지 계속 다 나온 얘기 아니냐"며 "안 전 대표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먼저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고 했는데), 그에 대해 답을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문 대표의 제안에) 답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결국 우리 당에서 제일 필요한게 당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한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동의가 되면 그런 혁신을 해야 통합이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용득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표와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있는 사람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 살 수 있는 길(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문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다시 살아나려면 당을 해산하고 새로 만드는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문안박 연대를 부정적으로 봤다.

pej86@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tropolitan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20TH - NOV. 26TH, 2015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ello Home
 smile, you're home!

Thanksgiving Celebration!

Time to feast on the savings.

11/21-12/4, 2015
 at All Hmart Stores

풍성한 추수감사절, H마트가 준비한 하우스웨어 특별세일

YOU MUST BRING THE FLYER DISPLAYED IN THE STORE TO THE REGISTE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 OF THE DISCOUNTS. THERE ARE MORE SALES ITEMS LISTED ON THE FLYER THAT YOU CAN CHOOSE FROM. DUE TO PRODUCT AVAILABILITY, SOME PRODUCTS MAY SOLD OUT SOONER.

매장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해 보시고 더 큰 세일을 누리보세요.
 (할인 혜택은 전단지 안에 있는 쿠폰만 가능합니다.)

NEW CROP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햏쌀)
 40 lbs.
\$29.99 SMART CARD ONLY

NISHI MOTO Sekka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SMART CARD ONLY

CJ Cooked White Rice
 CJ 햏반 박스
 7.4oz. x 12ea./box
\$12.99 SMART CARD ONLY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Fuji Apple 후지사과 **\$1.49** lb.

Ginger 생강 **\$1.49** lb.

Dried Persimmon 곶감 **\$5.99** lb.

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6.99** FRI/SAT/SUN ONLY 20/21/22 ONLY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lb.

SOONYEWON Tofu 수원원 두부 **\$0.99** All Varieties/14~16oz. FRI/SAT/SUN ONLY 20/21/22 ONLY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Beef Short Rib/Chunk for Stew 찜갈비 **\$9.99** lb.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1.49** lb.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7.99** lb.

Whole Duck 냉동 통오리 **\$2.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

Whole Chicken 냉동 닭 **\$1.4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ollock 알래스카 근해 생태 **\$2.49** lb.

Squid 냉동 오징어 **\$1.99** lb.

Cooked Snow Crab 냉동 스노우 크랩 10up **\$8.99** lb.

TONGTONGBAY Dried Whitebait (Sliced) 통통배 뱀어포 **\$6.99** 2.5oz./pkg.

TONGTONGBAY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5.99** pkg./for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2.99** lb.

\$29.99 ~~\$39.99~~ LIMIT 1 ea.
 YOBO HOME Food Dehydrator 여보홈 음식 건조기 FF-770/Black/White/ea.

\$42.99 ~~\$59.99~~ LIMIT 1 ea.
 KÜHAUS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세라믹 히터 HSNT-12/ea.

\$29.99 ~~\$39.99~~ LIMIT 2 ea.
 KÜHAUS Egg Style Humidifier 쿠하우스 달걀형 가습기 Dark Brown/Natural Brown/ea.

\$19.99 ~~\$29.99~~ LIMIT 1 ea.
 KOTO Elec. Rice Cooker 코토 전기 밥솥 5cups/ea.

\$14.99 ~~\$21.99~~
 30cm SESHIN Dolce Frying Wok Pan 세신 들레 마를 궁중 뎡팬 ea.

\$17.99 ~~\$29.99~~ LIMIT 2 ea.

\$19.99 ~~\$29.99~~ LIMIT 1 ea.
 SUNHAK Electric Heating Chair Mat 선학 온열 방석 LCM-100/440mm x 440mm/ea.

\$4.49 ~~\$5.99~~ LIMIT 4 pair
 Rabbit Slipper 토끼 슬리퍼 Pink/Brown/pair

\$4.99 ~~\$6.99~~ LIMIT 2 ea.
 PUREUN SAENG HWAL Plastic Roll Bag 푸른생할 위생 롤백 500cnt/ea.

확실히 매운맛! 삼양 불닭볶음면 **\$5.99** 4.9oz. x 5ea./pkg.

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s

광천 녹차 도시락김 **\$4.99** 0.17oz. x 16ea./pkg.

G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해오름 소고기 양념 **\$4.99** Bulgogi/Kalbi/2.11 lbs.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FOOD CELL Coarse Red Pepper Powder 푸드셀 굵은 햏고춧가루 **\$12.99** 5 lbs.

AJINO MOTO Hondashi Bonito Soup Stock 아지노모토 혼다시 2.2 lbs. **\$9.99**

YOO DONG Canned Wild Bai Top Shell 유동 자연산 굴뱅이 14.1oz. **\$6.99**

시라키쿠 사누키야 우동 **\$4.99** 8.8oz. x 5ea./pkg.

SHIRAKIKU Japanese Style Sanukiya Udon Noodles

조림동이 찐빵 **\$3.99** All Varieties/8cnt - pkg.

CHORIPDONG Steamed Buns

추수감사절 맞이 **통통배 건조어포 특판전**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선인장 꿀가루 1lb. **\$2.99**

풍성한 추수감사절 식탁의 식욕을 돋워줄 한국산 명품멸치와 신선한 건어물이 한자리예요!

Tong Tong Bay's Thanksgiving **Dried Seafood Sale**
 NOV. 20TH - NOV. 22ND, 2015
 ONLY FOR 3 DAYS AT H-MART BURLINGTON

문재인 광주 제안, 새로운 것 없지만...안 결단만 남았다

문, 안에 공 들어...안 혁신방향에 "100번 옳고 공감하는 얘기" 비주류 등 반발...다만 '3인 완전체'될 경우 수그러들 가능성 커

(서울·광주=뉴스1) 조소영, 박응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문재인-안철수-박원순 희망스크립'을 재(再) 제안하고 두 인사가 이에 반응하면서 기구 구성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 대표의 언급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문 대표와 각을 세웠던 안 전 대표의 입장이 유보적인데다 비주류 의원들을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 또한 이어져 기구 구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다만 비주류 등의 반발은 당 안팎에서 '3인의 협력'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던 만큼 '문-안-박'이 손을 잡기로 전격 결정한다면 수그러들 여지가 있어 결국 안 전 대표의 '최종 결단'이 성사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에 위치한 조선대학교를 찾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문-안-박 희망스크립'에 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표는 희망스크립을 밀어내고 있는 안 전 대표에게 공을 들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3가지(당 부패척결·낡은 진보청산·새로운 인재영입) 혁신방향에 대해 "100번 옳고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말했고, 안 전 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 논의기구인 '수련비

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비주류가 기구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촉구하는 '기득권(대표직) 내려놓기'에 대해선 당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자신도 언제든 '백의종군'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기구에 '임시지도부'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두 분과 당대표의 권한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문 대표의 제안과 언급이 언뜻 새로운 듯하면서도 사실상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표 권한 분배가 새롭게 가미됐을 정도다.

안 전 대표의 혁신방향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포함해 특히 비주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문 대표는 이날 비주류를 겨냥해 "끊임없이 우리 당을 분란 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럼에도 이날 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당장 입장을 표명하거나 최종 결심을 재촉하는 상황이 된 것은 '문-안-박' 연대를 향한 진일보로 평가된다.

문 대표의 제안에 박 시장은 긍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에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지는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유보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짧게 답해 수용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혁신이 먼저"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오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여는 '과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 토론회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역별 지지자 그룹과 학계·정계 조연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당내 현안과 관련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었다. 사실상 안 전 대표가 '문-안-박' 총선 지도부 구성의 '키(key)'를 쥐게 된 셈이다.

다만 비주류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기구 구성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립이 최고위를 대체할 기구'로 고려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최고위원들)는 별도로 뽑힌 것"이라며 "문 대표가 물러나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상 그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영식 최고위원 또한 문 대표의 제안이 나온 뒤 입장 자료를 내고 "문 대표의 제안이 최고위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비주류의 좌장'으로 불리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용득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표와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 상황에 어느 정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 살 수 있는 길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문 대표 사퇴론을 다시 제기했다.

이날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다시 살아나려면 당을 해산하고 새로 만드는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범 야권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조선대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립에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천 의원과의 통합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한 것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비주류 등의 부정적인 기류는 '문-안-박'이 '완전체'가 된다면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당 곳곳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 비책으로 '문-안-박'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이 때문에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박 시장을 제외한 또 다른 당사자인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경우, 희망스크립 구성은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ho11757@news1.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야3선 이상 중진, '문·안·박 연대' 지지 움직임

김성곤 주도로 성명서 서명 받아...

"문재인-안철수, 혁신·통합 협력해야"

(서울=뉴스1) 장웅석,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이른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구성 제안과 관련해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김성곤(4선) 의원은 이날 "문 대표의 '문·안·박 공동대표제'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어 3선 이상 의원들을 상대로 동침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전까지 의원 15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며 "인원을 더 모아 오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3선 이상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어제(18일) 문 대표의 제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당내 통합을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제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느냐는 당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토록 도와주되, 문 대표의 제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성명서 초안엔 문 대표의 '문·안·박 공동 지도부' 구성 제안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고,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제안을 수락해 당내 혁신과 통합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명서엔 "당에선 이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문·안·박 체제'의 부족한 점(지역·성별 대표성 등)은 점진적으로 보완하되, 궁극적으로 당 밖의 민주 세력과 모두 힘을 합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 지도부는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자세로 단결해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3선 이상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38명(3선 24명·4선 9명·5선 4명·6선 1명)이다. ys4174@news1.kr

안, 문 연대 제안에 "의견 더 듣고" 22일 '중대결단' 할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총선 임시지도부' 구성을 거듭 제안한 것에 대해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지역별 지지자 그룹과 학계·정계 조연그룹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그간 '선(先)혁신'을 주장하며 통합기구 구성 논의를 거부해온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문 대표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과 자신의 구상이 담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점은 오는 22일경으로 관측된다.

이날 안 전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존 킨 시드니 대 정치학과 교수를 초청, 국회에

서 '과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 토론회를 연다.

'내일'은 이날 토론회 공지를 통해 "안철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낡은진보와 패권정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존 킨 교수 발제와 토론은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조직된 세력의 동원정치 한계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과수꾼 민주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제1야당에 쓴소리를 해온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smith@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가와 척추신경
전문가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의 외솔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총궐기대회 해산...농민 1명 위독 · 고교생 등 50명 연행

60대 농민 물대포 맞고 뇌수술...중국인 관광객 등 29명 부상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

(서울=뉴스1) 사건팀 = 14일 오후 부터 밤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등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경찰과 7시간 가량 충돌한 끝에 밤 11시쯤 해산을 시작했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등 투쟁본부 측은 밤 10시56분 태평로에서 해산을 선언했다.

대오에 남은 2000여명(주최 추산, 경찰 추산 1500명)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자정 기준 집회를 통제하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현재까지 모두 50명의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행된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넘어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 7명, 구로 8명, 동작 10명, 수서 5명, 서초 4명, 강서 8명, 양천 8명 등 이들은 서울시내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는 고교생 문모(18)군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문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집회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13만여명(경찰 추산 8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오후 4시쯤부터 대치는 7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밧줄 등을 사용해 차벽을 넘거나 끌어내고, 경찰은 식용유와 최루액, 물대포 등을 동원해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백씨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백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뇌진

탕을 일으킨 뒤 오후 7시30분쯤 서울 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백씨가 현재 수술을 받고 있다"며 "신경 반응이 와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 등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며 현재 백씨는 뇌수술을 받

고 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민주노총 등 투쟁본부 측은 "대오에 남은 인원 일부가 백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백씨의 경과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밤 9시를 넘기면서 대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참가자 일부가 횃불을 던지고 버스 차벽을 흔들기도 했다. 자정을 넘긴 지금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현

장을 떠난 상태다.

경찰은 이날 240개 중대 2만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일대 통로를 봉쇄했다.

여기에 청년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하철 광화문역사를 통제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면서 발길이 막힌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padeok@news1.kr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이종걸 "물대포 사태, 경찰권 남용...살수규정 등 위반"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엔 "국정원이 중심기관 돼선 안 돼"

(서울=뉴스1) 장용석, 조소영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던 한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16일 '경찰권의 남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쌀값정책과 일방적 노동개혁(改惡)에 반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테러에 가까운 강경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하고, 많은 사람이 살수차의 폭력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 측이 이번 집회 진압과정에서 물대포를 이용한 살수(撒水) 거리 등의 규정과 구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거의 미필적 고의, 엄청난 과실이 있는 중상으로 백 선생의 손과 발이 차갑게 됐다. 경찰의 행위가 이준석(세월호) 선장의 무자비한 살인과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두 고씨(고 내정자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방송가를 움직이려는 쌍고동 소리가 들린다. 민주주의를 침몰시키는 소리와 같다"며 "그러나 그 소리는 시대에 맞지 않고, 열린사회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당은 썩은 사과 하나가 모든 사과를 썩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고 내정자 인선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對)테러를 맡기는 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성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을 대테러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과잉진압, 선진국 경우 보면서 판단해야" 발언 논란

"미국선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 이완영 의원 막말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에 대해 "미국 경찰은 총을 쏘 시민을 죽여도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서 총을 꺼내는 거로 인식하면 당당한 공무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 모임에서 "미국에선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패 버리지 않느냐"라며 "그

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부당하다며 공분했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농민 백모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실신해 중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15m 밖에서 하반신을 겨냥해야 한다'는 등 안전규정을 어기고 과잉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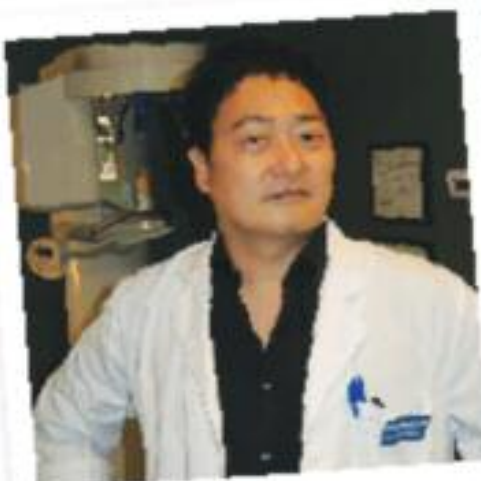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통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용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파 화장실 내 위치)

탈라, 교란지 쥬,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루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컬로언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지,
피로방, 면역, 항
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활력을 주는 효자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 50% 할인
간접광고로 인해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실체 확인된 반기문 방북…일정 · 의제 조율과정서 '수싸움'?

평양 내 일정 및 김 제비서 면담 등 이견 가능성
북, 자체 보도 대신 의도적으로 외신에 흘려 반 총장 압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설(說)만 무성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과 관련해 유엔과 북한 간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19일 최종 확인됐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정오에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의 방북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방북설이 처음 제기된 후 유엔 측에서 방북 논의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 측은 "유엔 관계자나 반 총장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북한 방문을) 발표하지 않는 한 그밖의 모든 것은 순전한 추측이다"고 밝혀 반 총장의 방북이 이른 시기에 이뤄지진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유엔의 입장과 지난 16일 처음으로 반 총장의 방북설이 불거진 뒤 이어진 상황을 종합하면 반 총장의 방북을 두고 유엔과 북한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첫 방북설 제기 후 유엔은 "현 시점에선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으나 방북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다.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으나 평양 내에선 의미있는 반응이 나왔다.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 신화통신이 17일 평양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반 총장의 방북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같은 보도 형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자체 보도 없이 상주 외신을 통해서 인용되지만 한 사례는 없었다.

신화통신은 이어 18일엔 "반 총장이 23일부터 3박4일 간 평양을 방북한다"는 보도를 역시 관영 조선중앙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평양발로 내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관영 매체를 통한 공식적인 보도를 내진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유엔은 "반 총장의 내주 일정에 방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신화통신의 보도를 부인함으로써 반 총장의 방북설은 다시 미스테리에 빠지는 듯 했다.

이를 두고 양측이 반 총장의 방북을 놓고 물밑에서 줄다리기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화통신의 평양발 "23일 방북" 보도가 실제 유엔과 북한 측이 논의했던 하나의 안으로 북측이 의도적으로 신화통신 측에 '흘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의 방북 후 일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 총장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면담을 두고 북측에서 난색을 표했거나 반 총장 측에서 북측이 제시한 어떤 일정에 대해 거부를 표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북측이 통상 외빈의 방북시 선대들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을 일정에 포함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반 총장에 '남한 사람'이 아닌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김 제1비서 면담의 조건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 총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경우 실정법 위반까지 언급될 수 있는 만큼 반 총장의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또 양측이 면담시 다룰 의제를 놓고도 의견차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 기여'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반 총장과 국제사회에서 입지 확대를 노리는 김 제1비서 모두 이번 방북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양측 모두 주요 의제를 놓고 양보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으론 프랑스 파리에 대한 IS의

테러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 총장의 방북 일정 자체를 뒤로 미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이 방북 일정을 연기하자 북측에서 외신을 통해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측은 내년 신년사 발표 이전 반 총장의 방북을 성사시켜 성과로 과시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신화통신의 보도는 북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ojiba@news1.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무한도전 변호사' DJ · 참여정부, 젊은 파…천 신당 추진위원들

천정배 "헌신 · 성취 · 용기 기준으로 추진위원들 선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천정배 의원의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위원장 천 의원)가 18일 출범한 가운데 총 32명의 추진위원 면면에 눈길이 간다.

천 의원은 헌신 · 성취 · 용기를 기준으로 추진위원들을 선정했다고 했다.

우선 천 의원 등 참여정부(노무현)에서 직을 맡았던 인사 6명이 추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문을 맡은 전윤철 의원은 국민의 정부(김대중)에서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현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문인 윤덕홍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로, 참여정부에서 교육부 총리를 역임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참여혁신 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전문위원과 시민사회수석실 정책위원이었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이주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있다.

20 · 30대 청년들도 눈에 띄었다. 김보람 청년문화공동체 '코끼리 협동조합' 대표와 한옥게스트 하우스 대표 김정윤씨, 이준의 부천대 비서경영학과 교수, 최준호 익산기독교윤리실

천운동 사무처장 등이다.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광호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지재식 전 KT노조 위원장, 이덕욱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 ·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은 노동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백찬홍 환경운동연합 미디어 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유영업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등은 오랫동안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운동을 해온 인물들이다.

교수 등 지식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김맹하 제주대 독일학과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 등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김광철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순천향대 초빙교수인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과 세종 지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스크린쿼터 영화인 대책위 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외과 전문의인 전홍준 굿뉴스의료봉사회장은 창당추진위에서 고문을 맡았다. 양미강 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총무는

동아시아 평화운동과 한중일 과거사, 역사교육 관련 운동을 해왔다.

창당추진위 대변인을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 초대 간사 등을 맡으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힘써왔다. 장 변호사는 무한도전 등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려왔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집행위원 등을 지낸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조세재정 · 경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밖에도 MBC, SBS 등에서 아나운서와 앵커를 한 김성호 프리랜서 방송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문광석씨, 우리 쌀 연구로 독자적인 발아현미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한 '박사 농부' 이동현씨, 이창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비상임이사, 최낙준 전북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도 '천정배 신당'의 추진위원으로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정 변호사는 서울시장 집행위원장,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인 이상호씨는 대구시장 교육연구위원장을 지냈다.

eriwhat@news1.kr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주먹을 불끈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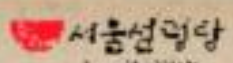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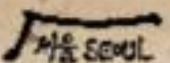


더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국밥, 소면, 두유와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Seoul or Seoul? III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r.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카락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캐리컷 패치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장학 연구생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 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c@HammondRE.com



주윤희
Jin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일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in Corpus Christi

<판공성사>
12/6일, 13일, 20일 주일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목) 8pm

<성탄절 행사 & 미사>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금) 12:15pm
미사
12월 25일(금) 4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목)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금) 11:30 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mmunity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주일예배: 오후 10:00	금요 기도회: 저녁 7:00
--------------------------	----------------	-----------------

* 모든 언어는 "다문화 길"과 언어와 기독교 미디어 (한국어 & 영어)
담당 목사: 루시 창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Owner of RE
www.ganancorp.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담당 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NY City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1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 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턴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안에 머무는 삶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사모 사귀어, 그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진심, 존중, 신뢰, 사랑, 헌신, 부활에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0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목회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cific Northwest United Methodist Church
89 Mt. Auburn St., Westport, MA 02472 Tel: 617.744.8587
www.pnw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틸리티 구역안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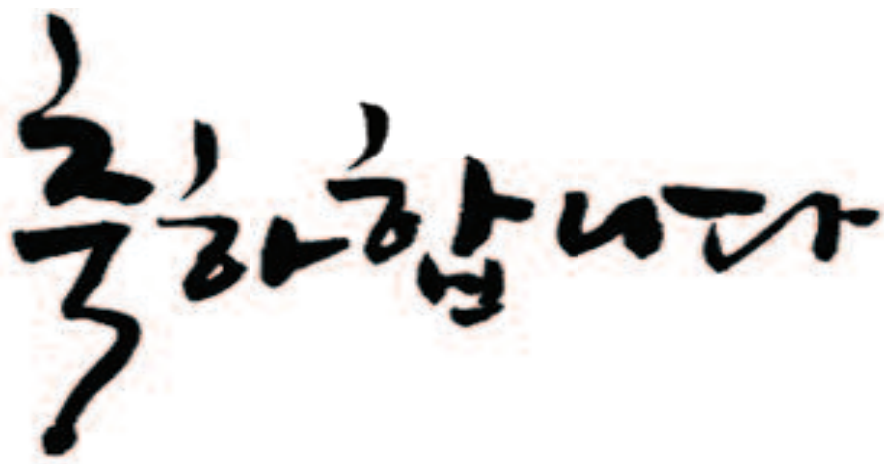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이선호 지사장 / energy@acn-xoom.com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617.504.0609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경해 부동산 Lee Associate 1.800.867.9000

2015 NFL 11주차 파워랭킹 TOP 4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10주차까지 경기를 마친 NFL은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다. 각 지구별로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시기다.

2015 정규시즌이 11주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직 2팀이 패배가 없다. 무패팀인 팬서스와 패트리어츠를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NFL에서 가장 강한 4팀을 살펴보자.

4. Arizona Cardinals

매주 매경기마다 카디널스의 쿼터백 카슨 팔머는 상대 수비 선수와 견주어 우위에 있는 리시버를 선택해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마다 주요 타깃이 되는 리시버가 바뀐다. 베테랑 쿼터백이 리시버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경기와 상대팀에 따라 다르게 패스한다는 것이 카디널스의 최대 장점이다.

카디널스의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 중에 보이는 실수가 약점으로 꼽힌다. 주전 리시버들과 오픈시브 라인에 속한 선수들이 매주 출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주전 선수들의 건강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 Cincinnati Bengals

벵갈스의 세이프티 듀오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32세의 베테랑 세이프티 레이저 넬슨은 진정한 프리 세이프티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넬슨은 한쪽 사이드라인에서 다른쪽 사이드라인까지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며 상대팀의 장거리 패스를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다.

벵갈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하던 일이 드디어 발생했다. 쿼터백 앤디 달튼이 프라임 타임에 펼쳐진 중요한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 주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달튼은 38번 패스 시도에 22번 성공, 197야드와 1번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MVP 후보로도 꼽혔던 달튼은 더 이상 MVP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 어렵게 되었고, 벵갈스의 무패 행진도 막을 내렸다.

2. Carolina Panthers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하던지 팬서스와 캠프 뉴튼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팬서스는 모든 경기를 즐기면서 승리하고 있다. 팬서스가 9연승을 달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다. 팬서스의 전력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엘리트 팀으로 불리기 어렵다. 그러나 팬서스는 매주 상대팀을 꺾고 승리하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스캇 찬들러가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성공 시킨 후 재미난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팬서스의 와이드 리시버는 여전히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팬서스가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높은 곳까지 진출하려면 와이드 리시버가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

1. New England Patriots

지난 주 자이언츠와의 경기는 스페

셜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경기였다. 패트리어츠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54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했다. 패트리어츠의 �커 스티븐 고스토스키는 이번 시즌 NFL에서 유일하게 필드골이나 추가 득점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키크다. 50야드 이상의 장거리 필드골도 4번 시도해 4번 모두 성공했다.

주전 러닝백 디온 루이스가 시즌을 마감하는 부상을 당한데 이어, 주전 리시버 줄리언 에들먼까지 4-6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부상을 당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3시즌 동안 에들먼은 브래디의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다. 에들먼의 공백은 쉽게 메울 수 없어 보인다.

jsi@bostonkorea.com

[프리미어12] 한국, 일본에 4-3 대역전승...결승 진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도쿄 대첩'을 일궈냈다.

한국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야구 국가대항전 2015 WBSC 프리미어12 일본과의 4강전에서 9회초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4-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오는 21일 미국-멕시코전 승자와 대회 첫 우승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일본의 에이스 오타니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6회까지 노히트 노런으로 막혔고 7회초에서 첫 안타를 쳤지만 점수를 뽑지 못했다. 오타니는 7이닝 동안 1피안타 11탈삼진을 기록하면서 한국 타선을 완벽하게 눌렀다.

그러나 한국은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승부를 뒤집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만들어낸 극적인 결과였다. 이대호는 9회초 승부를 뒤집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프로선수가 참가한 대회에서 일본과의 맞대결 전적을 20승 21패로 좁혔다.

한국은 4회초 일본에게 선취점을 빼앗겼다. 선발 이대은이 선두타자 나카타 쇼에게 볼넷을 내준 뒤 1사 1루에서 나카무라 아키라, 히라타 료스케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첫 실점했다. 이어진 1사 1, 2루에서 시마 모로히로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했지만 유격수 김재호의 악송구로 추가 실점했다.

1사 1, 3루에서 한국은 이대은을 마운드에서 내리고 차우찬을 등판시켰다. 그러나 차우찬은 아키야마 쇼고에게 볼넷을 내준 뒤 사카모토 하야토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면서 3점째를 허용했다.

오타니에게 막혀있던 한국은 7회초에서야 첫 안타를 때려냈다. 선두타자 정근우는 오타니의 2구째를 받아쳐 중전안타를 기록했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이용규와 김현수는 삼진을 당했고, 이대호는 3루수 땅볼에 그쳤다.

끌려가던 한국은 9회초 대타 오재원과 손아섭이 8회부터 등판한 일본의 구원투수 노리모토 다카히로를 상대로 연속 안타를 때려 찬스를 잡



1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12 4강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9회말 무사 만루 이대호 선수가 역전타를 친 뒤 포효하고 있다

았다. 이어 정근우가 1타점 2루타를 작렬, 1점을 만회했다. 계속해서 이용규가 몸에 맞는 공, 김현수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고 한국은 1점차로 따라 붙었다.

무사 만루에서 일본시리즈 MVP

이대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이대호는 일본의 마무리 요원 마사이 히로토시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폭발시켰고 한국이 4-3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9회말 정대현이 2사 후 나

카타 쇼에게 안타를 맞았다. 한국은 소방수 이현승이 마운드에 올라 대타 나카무라 다케야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하고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yjra@news1.kr

© 2015 Tufts Health Plan, Inc.

새로운 이름, 같은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가 이제 간단하게 **Tufts Health Plan** 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tuftshealthplan.com.



ké
 coração
 마음.
 corazón
 heart



TUFTS

Health Plan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파도나
변호사



Yael We
변호사



박계영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시민권 신청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NEWSTAR BOSTON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해외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 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9,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0년 개업 / 100만 평방 피트 이상 /
전국에 걸쳐 부동산 / 1000 개 이상의 에이전트 / 한국 및 중국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899,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비즈니스 빈자리	병원건물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니 COMPASS 5-11-25-11
 WWW.BOSTONKOREA.COM, 617-202-3808

4월 15일(수)
 10:00 ~ 12:00
 13:00 ~ 15:00
 16:00 ~ 18:00
 19:00 ~ 21:00

365일 캐주얼
 예약 환영합니다.
 2015년 4월 15일

617-202-3808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46 November 20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턴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엔스 헤어 살롱'

엔스 헤어 살롱 (Yen's Hair Salon)

업소탐방 313

엔스 헤어 살롱

14 Tyler St # 14, Boston, MA 02111
 (617) 338-3888

Welcome, **YEN** 한국 방송 3시 캐주얼 TV 푸코한 사업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타보 플레이언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24인치 화면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50% 할인 가격으로 24시간 시청 가능

방송 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한국 방송 3시 시청 가능

무제한 시청 할 \$39.99
 12개월 계약

817.955.9112
 24시간 상담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
 톤 시내 차이나타운 중심에 위치한 '엔스 헤어 살
 룬' 은 자그마치 2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엔스 헤어 살롱은 중국인 매이 성 대표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
 고 있는 미용실이다. 성 대표는 1981년부터 미용사
 경력을 쌓아와 30여년이 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
 웬만한 손님들의 머리는 얼굴만 봐도 어떤 헤어스
 타일이 어울릴지 바로 알고 있다.

성 대표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물론 백인과 흑인
 손님들의 머리로 문제 없이 손질 해오고 있다. 더 놀
 라운 사실은 타 주에서 매년 성 대표와 예약을 해오
 는 손님들도 꽤 많이 있다.

성 대표는 헤어 커트, 염색, 파마, 트리트먼트, 스
 타일링, 볼륨 등 모든 서비스를 문제 없이 자신감 있
 게 완료시키는 미용사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엔스 헤어 살롱의 손님들
 역시 몇 년 동안 성 대표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스트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배씨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엔스 헤어 살롱을 찾아
 온 이유는 중간에 몇 번 미용사를 바꿔 보았지만 내
 머리 형에 어울리는 모양을 잡아주는 사람은 성 대

표 밖에 없다" 고 전했다.

성 대표의 실력은 보스턴 시내에서도 명성이 자
 자해 뉴버리 스트리트 헤어 샵에서도 성 대표를 섭외
 하려고 연락을 몇 번이나 시도 했었지만 성 대표는
 "자신의 손님과의 추억이 담긴 엔스 살롱을 감히
 벗어 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성 대표는 중국에서부터 머리 손질을 배우기 시
 작하여 소질이 있는 걸 알게 된 후 모든 열정과 에너
 지를 미용 서비스에 전념했다. 그녀는 현재 차이나
 타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평판을 갖고
 있다.

수 있었던 이유로 성 대표는 "나는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손님이 만족하지 않
 으면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손님이 만족해야, 나도
 행복하다" 고 답했다.

엔스 헤어 살롱 안에는 페이스셜 마사지와 페이스셜
 기계들이 다양해 페이스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
 아 매주 예약 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다.

엔스 헤어 살롱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이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턴 차이나타운에서 2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할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구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741-5533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웨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정선교사협회	978-407-7554
국제대한교정선교사협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대사추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회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교도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둔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클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971-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둔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백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양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아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보스톤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곡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뱀열교회	978-274-236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웨스턴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위십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클로벌건축	617-645-6146
권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록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206-4560
뷰티룸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육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트라치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메디칼(0 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와	617-566-1055
-----------	--------------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너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29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미분한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일명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1/27
커머셜(사무실) 청소하실 분 부부팀 구
합니다.
T. 508-944-4243

11/13
세탁소에서 흙 딜리버리(웨스턴지역)
드라이버와 테일러 (영어가능) 구함.
T. 603-401-0113

월-수, 니드햄지역 아이들(8살, 10살)
라이드와 집안일(식사와 빨래) 하실분.
T. 781-367-9687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싹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아메리카 스타일 아침, 점심 레스토랑(Restaurant)하실 분.

3 Washington St. Somerville, MA
Rent(Lease) \$3,900/M + 장비포함
2,200 Square Foot

T. 781-773-5984

N[구 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구인]
 품격있는 가게에서
 아가씨 구합니다
 침식제공, 좋은 보수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
 T. 210-501-9448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N[매 매]
10년된왕가게
월매상 \$42,000 ,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N[매 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
매 합니다
T. 478-213-3089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화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 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 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 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 222 Rosewood Drive, Danvers, MA 01923. Organizations in the USA who are also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may therefore copy material (beyond the limits permitted by sections 107 and 108 of US copyright law) subject to payment to CCC of the per copy fee of \$0.00 per copy. This consent does not extend to multiple copying for promotional or commercial purposes. ISI Tear Sheet Service, 3501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 USA, is authorized to supply single copies of separate articles for private use only.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may also copy material subject to the usual conditions. For all other use, permission should be sought from Cambridge or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is journal is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222 Rosewood Drive, Danvers, MA 01923. Organizations in the USA who are also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may therefore copy material (beyond the limits permitted by sections 107 and 108 of US copyright law) subject to payment to CCC of the per copy fee of \$0.00 per copy. This consent does not extend to multiple copying for promotional or commercial purposes. ISI Tear Sheet Service, 3501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 USA, is authorized to supply single copies of separate articles for private use only.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may also copy material subject to the usual conditions. For all other use, permission should be sought from Cambridge or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is journal is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222 Rosewood Drive, Danvers, MA 01923. Organizations in the USA who are also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may therefore copy material (beyond the limits permitted by sections 107 and 108 of US copyright law) subject to payment to CCC of the per copy fee of \$0.00 per copy. This consent does not extend to multiple copying for promotional or commercial purposes. ISI Tear Sheet Service, 3501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 USA, is authorized to supply single copies of separate articles for private use only.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may also copy material subject to the usual conditions. For all other use, permission should be sought from Cambridge or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치인트' 속 6인6색, 캐릭터 완벽 빙의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을 이끌어갈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알록달록 배경을 뒤로 한 개성만점 배우들의 표정이 돋보인다.

내년 1월 4일 방송예정인 tvN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이하 치인트)'(극본 김남희, 고선희, 전영신/연출 이윤정) 측은 19일 오전 배우들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작품은 달콤한 미소 뒤 위험한 본성을 숨긴 완벽 스펙남 유정과 그의 본모습을 유일하게 꿰뚫어본 여대생 흥설의 숨 막히는 로맨스릴러를 담아낸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 속엔 노랑, 주황, 민트 등 갖가지의 색상의 배경 위로 인물 개개인의 성격과 심리상태는 물론 이들의 관계까지 예감케 하는 카피 문구가 적혀있다.

먼저 유정 역의 박해진은 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공감? 소통? 그냥 조종하는 게 훨씬 쉽

잖나요?'라는 카피문구로 미묘한 긴장감을 발산한다. 흥설 역의 김고은은 '정신차려 흥설! 저 미소에 넘어가면 안돼!'라는 문구와 함께 머리 카락을 쥔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녀와 유정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호기심을 더하고 있다.

또한 백인호 역의 서강준은 반항기 가득한 눈빛으로 '개털! 나 왜 자꾸 네가 신경 쓰이냐'라는 문구로 극 중 '개털'이라는 별명을 가진 흥설과 남다른 인연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당찬 표정과 화려한 의상이 눈에 띄는 백인호 역의 이성경은 '유정, 널 이해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당당한 카피문구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지막으로 권은택 역의 남주혁은 장보라 역의 박민지를 향해 '보라누나, 나도 꽤 괜찮지 않아?'라며 은근한 어필을 하고 있지만 박민지는 '은택아 우린 안 돼. 그럼 설이란 남잖아!'라고 철벽을 치고 있어 밀당 로맨스를 예고했다.

uu84@news1.kr

수지 한복화보, 꽃보다 아름다운 여인 '단아함 물씬'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수지 한복화보가 절정의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지는 18일 공개된 퍼스트룩 화보에서 고혹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물씬 풍기며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첫 한복 화보에 도전한 수지는 풍부한 감성으로 매 컷마다 깊은 눈빛을 더했다.

수지는 영화 '도리화가'에서 순박하고 당돌한 소녀에서 포기를 모르는 강한 내면의 소리꾼,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여인으로 변화해가는 진채선 역을 맡았다.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 진채선 캐릭터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리화가'는 1876년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이 탄생하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아낸 영화다. 오는 25일 개봉된다.

star@news1.kr



'열정' 정재영 1초마다 터지는 분노 스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열정같은소리고있네'가 진격의 부장 하재관 역을 맡은 정재영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분노 3종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는 25일 개봉되는 영화 '열정같은소리고있네' 취직만 하면 인생 풀릴 줄 알았던 수습 도라희(박보영 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사 하재관(정재영 분)을 만나 겪게 되는 극한 분투를 그린 공감코미디이다.

극 중 하재관은 일의 능률을 위해선 백 마디 칭찬보다 한마디의 욕이 낫다는 신념을 지닌 인간 탈곡기다. 영혼까지 탈탈 터는 시한폭탄 상사 하재관이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모습은 대한민국 대표 연기와 배우 정재영의 리얼한 연기가 더해져 공감과 웃음을 유발한다.

먼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발산하는 하재관 역 정재영의 모습을 담은 스틸은 등 뒤

의 화염과 함께 분노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며 뺨 터지는 웃음과 함께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어 통화 중 분노를 폭발시키며 전화기를 던지는 하재관의 모습이 담긴 스틸은 사무실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시한폭탄 같은 하재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현실에서 갓 튀어나온 생동감 넘치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서툰 수습 도라희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다시 해!"라며 가장 듣기 싫은 한 마디를 내뱉는 모습은 하재관 캐릭터에 완벽하게 빙의한 정재영의 유쾌한 매력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대표 연기와 배우 정재영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하는 하재관 분노 3종 스틸은 '열정같은소리고있네'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킬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손흥민 유소영 열애설, 시원하게 인정할까?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축구선수 손흥민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유소영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19일 한 매체는 손흥민과 유소영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 손흥민은 한 손에 다 양한 빼빼로를 들고 나타났다.

유소영은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직접 파주NFC 인근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으며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 데이트를 했다.

특히 손흥민은 헤어지기 전 차에서 내

린 후 유소영에게 손 키스를 날리며 애정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소영 소속사 관계자는 쏟아지는 연락으로 인해 전화가 불통인 상태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0일 오전 입국해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얀마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5차전을 치르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유소영은 걸그룹 애프터스쿨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전향해 '나만의 당신', '상류사회' 등에 출연했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1월 9일 ~ 11월 1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6.6%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26.1%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0.8%
4	MBC	주말드라마(엄마)	17.3%
5	MBC	수목미니시리즈(그녀는예뻐다)	15.9%
6	KBS1	KBS9시뉴스	15.7%
7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4.9%
8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3.9%
9	KBS2	해피선데이	13.8%
10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3.7%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조강지처)
3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 승리)
5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6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 지켜라)
7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 내 며느리)
8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 꿀단지)
9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단신)
10	SBS	주말특별기획(애인있어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Boys And Girls (Feat. Babylon)	지코 (ZICO)
02	안아보자	포맨
03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4	스물셋	아이유
05	I (Feat. 버벌진트)	태연(Taeyeon)
06	No Make Up	Zion.T
07	4 Walls	f(x)
08	푸르던	아이유
09	취향저격	iKON
10	Zeze	아이유

숫자 퍼즐 (Sudoku)

		2	8					
8			1		6			
9	3						8	
1	5			2				
6	7	9				4	5	2
				6			9	1
	8						2	7
			2		7			5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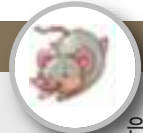
11월 22일 - 11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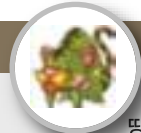
●운수:기쁜 일과 힘든 일이 교차되는 때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금전: 풍성한 시기이니 재물이 유리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애정:사랑은 계절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결국에는 계절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사랑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소띠 |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운수: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따라주는 재물도 클 것입니다. ●애정:말 한마디로 사람을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범띠 |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운수:처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금전: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형편을 넘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정: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토끼띠 | 두뇌회전이 잘 되는



●운수:두뇌회전이 잘 되는 때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크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정: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욱 가까워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7일 길일. 26, 28일 주의.

용띠 | 최선이 더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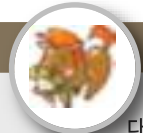
●운수:최고보다는 최선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금전: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그것의 속내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8일 길일. 24, 26일 주의.

뱀띠 | 한 번 돌아볼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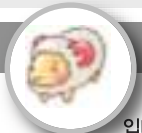
●운수: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니 평소보다 먹는 것을 더 잘 챙겨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세요. ●금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7일 길일. 22, 28일 주의.

말띠 |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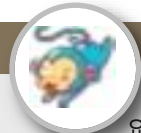
●운수:의욕만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독불장군식의 행동은 자신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애정:구태어 상대를 자국해서 끌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양띠 | 순간순간이 소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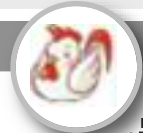
●운수:자신을 가장 위해주고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금전: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보이기보다는 뭔가 허술한 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득도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살다보면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순간순간이 소중한 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원숭이띠 |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



●운수:억지로라도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금전:벌써부터 열매를 따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애정:한편으로는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8일 길일. 22, 25일 주의.

닭띠 |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운수:눈에 보이는 성공스토리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자존심을 세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정: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니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개띠 |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운수: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전에 잃어 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거나 하는 등 뜻밖의 수확도 있겠습니다. ●애정: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주세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7일 주의.

돼지띠 |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운수: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혼자서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금전:알고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는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세요. 그냥 지나가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둘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가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7일 길일. 24, 25일 주의.



EXID, '핫핑크' 5대 음원차트 1위 싹쓸이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걸그룹 EXID(솔지, LE, 하니, 혜린, 정화)의 정주행이 시작됐다.

18일 0시 공개된 EXID의 새 디지털 싱글 '핫핑크'(HOT PINK)는 오전 8시 기준 지니, 올레뮤직, 벅스, 소리바다, 몽키3 등 5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찍으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네이버 뮤직은 2위, 멜론과 엠넷은 4위를 기록하는 등 남은 주요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음원 공개에 앞서 지난 17일 네이버 V앱 생중계로 'ALL DAY EXID 번개파티'를 개최한 EXID

는 "우리는 연예인 친구가 없기로 유명하다"며 걱정했지만 이들의 번개 요청에 많은 동료들이 흔쾌히 참석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따듯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현장에는 토니안에 슈퍼주니어 김희철, 2PM 옥택연, 갯세븐 잭슨, 피에스타 예지, 엠블랙 미르, 비투비 형식과 서은광, 빅스 켄, 와썹 다인, 헬로비너스 라임, 나인뮤지스 소진, 매드타운 대원과 허준, 장희영, 작곡가 에스나에 유재환, 래퍼 길미와 단딘, 베이식 그리고 양세형, 양세찬, 이진호 등 개그맨들까지 다양한 인맥들이 자리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인

맥도 있었지만 연습생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오랜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고 누구보다 EXID의 성장을 기뻐하며 조연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EXID는 지인들과의 즐거운 급만남과 더불어 '아예' 활동 당시 지키지 못했던 M/V 1000만 돌파 공약을 이행, 망가짐도 불사 않는 비글 매력에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최초로 '핫핑크'의 새 뮤직비디오와 새로이 선보이는 안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lee1220@news1.kr



'슈퍼스타 K7' 우승 케빈오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슈퍼스타 K7' 우승자는 케빈오였다.

19일 밤 11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Mnet '슈퍼스타 K7' 결승전에서는 TOP2 천단비와 케빈오가 직접 선곡하는 자유곡 미션과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자작곡으로 꾸며지는 신곡 미션으로 꾸며졌다.

이날 온라인사전투표, 문자투표, 심사위원 점수 합산한 결과, 천단비를 제치고 케빈오가 우승을 차지했다.

케빈오는 "무대에서 서면서 노래하면서 제 마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우리 가족, 아빠 시애틀에서 온 가족, 한국에 계신 가족 사랑한다. 마지막 아름다운 여러분, 저를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슈퍼스타 K7' 우승자에게는 5억원의 상금, 재규어 XE, 초호화 음반 발매, MAMA 스페셜 무대와 유수 기획사 연계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lee1220@news1.kr

'해피투게더' 유재환 "박명수와 작업 중 온갖 욕 다 들었다"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작곡가 유재환이 박명수와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박명수는 최근 진행된 KBS2 '해피투게더3' (이하 해투) 녹화에 참여해 "유재환이 나와 처음 만났을 때 70kg가 안됐다. 지금은 94kg 나간다"고 폭로했다. 이에 유재환은 해맑은 표정으로 "맞다. 2년에 걸쳐서 천천히 찼다"고 순순히 인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환은 이어 "함께 작업하면서 박명수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은 다 먹어봤다"고 응수한 후 박명수와 계약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실 박명수가 저를 버릴까봐 5년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계약을 안 한 거였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poolchoya@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0400 • GG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상업용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영순, 광희 실수 연발에도 칭찬 "이 정도면 잘했다"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심영
순이 광희의 실수에도 그의 요리를 칭찬했다

광희는 11일 저녁 8시20분 방송된 올리브 TV '아바타 셰프'에서 한식 대가 심영순의 지시를 받아 섭 짬을 만들었다.

광희는 요리 프로그램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몇 가지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지켜보던 다른 셰프들은 간이 어떻게 걱정했다. 또 광희는 포도주를 잘못 찾아 매식장을 넣었으

며 자연송이를 물로 씻어 향을 다 날리는 실
수를 했다.

광희가 만든 섭 짬에 유희영 셰프는 "전체적으로 튀는 맛은 아니다. 오버쿠킹이 돼서 재료가 질겨졌다. 선생님이 주문할 걸 놓친 부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재료가 좋아서 만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셰프는 "와인 대신 매실청이 들어
가서 단맛이 난다"고 했으며 이재훈 셰프는 "
간이 안 맞는다. 국물을 먹으며 달고 맵기만

하다"고 평했다. 심영순은 섭 째이 지나치게 맵게 됐음에도 "한 60점 밖에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이 정도 맛을 낸 건 잘 한 거야"라고 칭찬했다.

한편 '아바타 셰프'는 셰프가 자신의 요리를 만들 아바타를 선정하고, 아바타는 셰프와 분리된 공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오직 셰프들의 지령만으로 주어진 시간 60분 내에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SBS	돌아온 황금복
2	MBC	위대한 조강지처
3	KBS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MBC	내일도 승리
5	SBS	육룡이 나르샤
6	KBS	가족을 지켜라
7	SBS	어머님은 내며느리
8	KBS	우리집 꿀단지
9	MBC	아름다운 당신
10	SBS	애인있어요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신규 방송

1	MBC	아름다운 당신
2	CJ E&M	아바타 셰프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최신 영화

1	사도	송강호, 유아인
2	비밀	성동일, 손호준

'비밀', 성동일 · 김유정 · 손호준의 지독한 악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비밀'이 지독한 악연으로 엮인 세 인물들의 비극적인 관계가 돋보이는 캐릭터 영상을 공개했다.

'비밀'은 살인자의 딸, 그녀를 키운 형사
그리고 비밀을 쥐고 나타난 의문의 남자.
만나서는 안 될 세 사람이 10년 뒤 재회하
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드라마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영상은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 각자의 사연과 비밀을 품은

세 인물 상원, 철웅, 정현까지, 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의 인터뷰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비밀'의 캐릭터 영상은 세 인물의 슬픈 악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영화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uu84@news1.kr





보스톤군과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콘텐츠, 카세트, 최신 정보, 구독서비스, 고객 지원, 무료 배송, 콘텐츠, 프로그램 The Best On-Demand & TVO
 모바일 TV를 시청하려면 tbo play. 콘텐츠를 보려면 모바일이나 tbo 내수선에서 tbo play. tbo play를 보려면 tbo play를 보려면 tbo play.

The Best On-Demand, tbo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매상 5만-7만. Asking \$20,000
- 6.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 7.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 11.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800
- 12. 렌트 : 25 Baker St, Belmont. 3bed 1.5 bath 1,500sf. 벨몬트 high school에서 5분거리. \$2,2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3회

가면과 복면의 안과 밖...

한국을 여행 중이다. 요 며칠 마음이 우울하다. 그것은 프랑스 파리 도심을 무차별하게 공격한 무슬림 아이 에스의 테러가 프랑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화와 울분의 도가니로 채워버린 일 때문이다. 연일 아침저녁의 마스크에서는 야단법석이다. 그뿐일까.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대회'에서의 경찰과의 대립은 차마 보기조차 안쓰럽고 민망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경찰들과 대립하며 몸싸움을 하던 이들의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가면이 아닌 복면을 쓴 얼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잠시 가면과 복면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 깊은 생각에 머물렀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를 들자면 수없이 많다. 요즘처럼 대기오염의 공기 속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이들이 늘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약한 이들이 하나 둘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이제는 마스크 쓰고 오가다 만나는 모습이 그리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야외 활동이 이유이기도 하다. 동네 길을 산책하거나 둘레길을 걷거나 산을 오르내리는 길에 피부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물론,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라 처음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한국에 방문하며 자주 만나니 이제는 편안했다.

어쩌면, 나 자신이 한국에 살지 않는 까닭에 한국에서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전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방문 중 시내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마다 검게 코팅에 덮여 자동차 안의 사람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기 어렵다. 몇 번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하루는 재래시장을 돌게 되었는데 그 좁은 사잇길에서 검은 코팅에 뒤덮인 자동차를 만나게 되었다. 무엇인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잠깐의 느낌은 아니었다. 몇 년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면 유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찰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모으다 보니 요즘 한국에 와서 아침저녁으로 TV 시청이 늘었다. 그렇게 TV 리모컨을 여기저기 누르며 몇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을 가린 채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찌 보면 참으

로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른다. 사회적인 서로의 책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듯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싶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가족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나 자신은 가면을 쓰고 복면을 쓰고 감추며 다른 사람을 보는 일을 생각해 보자. 참으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아주 비겁하고 못난 일이 아니던가. 자신이 생각한 일이 당당하다고 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관철시켜 행동으로 옮긴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을 위하든 아니면 대중의 대의를 위하든 간에 옳은 일이라면 적어도 떳떳한 마음으로 얼굴을 굳이 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느 장소에서나 얼굴을 가린 복면한 그 모습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적이 드문 숲길이나 산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얼굴을 가린 가면(복면)을 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움찔한 마음과 섬뜩한 마음이 드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그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잠깐이라도 위압감을 전해준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기에 무어라 말할 그 어떤 명분은 없다. 다만, 나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해보는 것일 뿐이다. 검고 짙은 색깔의 코팅으로 자동차 유리를 가리고 운전을 하며 달리는 것이나 얼굴에 가면(복면)을 쓴 모습으로 숲길을 달리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슨 큰일이 될까마는.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고 씁쓸해지는 것은 적어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어떤 물리적인 피해는 아닐지라도 심적으로 부담스러움과 움찔하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서로 자제하며 양보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는 프랑스 파리 도심을 무차별하게 공격한 무슬림 아이 에스의 행동은 작게는 이렇듯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프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별이 빛나는 밤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노력과 수고없이 뭘 바라랴. 시인은 오년째 밤마다 환상의 별쇼를 즐기는 모양이다.

이씨 구멍가게, 외상 술값 갚은 날
뒷집 지고 마당에 나와 쳐다보는 별빛이여
이 값은 얼마나 될까
오년째 외상인데
(김원각·시인, 외상값, 산촌일기 중에서)

별은 주위가 어두워야 잘 보인다. 이쪽이 환하다면, 별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전기불은 낮춰라. 그래야 보인다. 날이 흐리지 않다면, 별은 그곳에서 언제든지 빛을 발할 터. 구름에 가리지 않았다면 별을 볼수 있다는 말이다. 구름도 없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이 나빠 스물스물 거리든지 아니면 이쪽 불이 너무 밝은 거다. 그렇다고 별을 보자고 감감한데,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니다. 뽕찌산도 아닌바에. 그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또 하나 마나한 소리를 지껄었다. 참, 별건 대낮에도 별이 보이면, 빈혈이든지 아니면 나처럼 안구가 말랐을 게다. 레이저 한방 받으시라. 날카

롭게 찌르는 별빛을 받아 보시라. 별빛에는 별빛이 약일 게다.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심야방송이었다. 이종환인가, 김광한이던가. 디스크자키였다. 늦은 밤에 소녀들이 듣던 방송이었다. ‘검 좀 씹던 누나’ 들만 들었던 건 아니다. 나야, 소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닥 즐기지는 않았다. 잠자기 바빴고 너무 졸려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시작 시그널 음악은 뱃속 장腸들이 내려앉는 듯, 아득하기 까지 했다. 감미로운 음률에 얹힌 디스크 자키의 목소리는 굵지도, 그렇다고 얇지도 않았다. 뭉쳐지듯 흩어졌다. 깊은 밤 잔잔한 호수가에 쏟아져 내린 별빛처럼 슬쩍 뒤채이며 퍼졌던 거다.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심야방송에 엮서따위로 신청곡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전화신청도 받았다. 전화기 귀하던 시절 촌에서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 웬 시외전화?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6)

가을이 깊어 간다. 겨울이 진격해 온다는 말과 같다. 비가 내렸고 빗물은 차가웠는데, 곧 개었다. 갠 맑은 가을하늘에 별들이 빛났고 쏟아져 내렸다.

어느 천문학자가 말했다. 연구대상인 별이 그에게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란다. 오히려 서정抒情으로 읽으려 한다. 말이 그럴듯 하다. 별이 서정抒情인 것은 천문학자에게 뿐이라. 운동주에게도 별은 시詩로 나타났고, 알폰스 도데에게도 별은 서정抒情이다. 내게는 이제야 별이 보인다. 감성으로 보인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 해에 멀쩡한 눈에 한낮에도 별이 보이길래 의사를 찾았다. 눈眼에 레이저를 쏘아댔다. 안구眼球가 너무 말라, 금이 갔다나 뭐라나. 덕분에 눈앞에 별은 사라졌다. 내눈에 별은 유성流星처럼 사라져 버렸다.

몇해 전 새벽 우연히 봤던 그 별에 너무 놀랐다. 초승달에 걸려 있었는데, 인공위성인가? 비행기 불빛인가 했다. 새벽 남쪽하늘 별치고는 너무 컸고, 너무 반짝여 헛갈렸던 거다. 무슨 별이 그다지도 크고 빛나던가? 그 별은 계명성이라 했던가. 섯별이라 하던가. 금성이라 한다면 삭막하다. 오히려 섯별이라 불러야 서정적이고 더 반짝인다. 내게 별은 북두칠성과 북극성만 구별하고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몇해 사이 내눈엔 섯별 뿐아니고, 별뿔별도 이따끔 보인다. 게다가 몇개가 연달아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뭐, 그렇다고 별을 보면서 시인처럼 깊은 상념에 잠기는 건 아니다. 별 구경은 외상은 아닌데, 마냥 공짜로 구경하지도 않는다. 한참을 쳐올려 보노라면, 뒷목은 아프다. 목을 꺾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7탄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상담 및 문의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검사, 백내장, 녹내장, A/D검진, B/D검진, 안압측정, 안저촬영, 안과용 수경에 검사

~~25~~ 만원 → **20** 만원

2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 만원 → **109**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 별도)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 만원 → **150**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 만원 (DNA(10만원 상당), 안 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 종합검진 진료료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쳤다면...

20~30대 어릴적부터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해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등을
돋보기로 볼때 피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해의외로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com.kr / www.huramkorea.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8. 샌드크리크 대학살 (2)

사이언족과 아라파호족에 대한 샌드크리크 대학살 (계속)

세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의인이 있기 마련이다. 시빙턴의 말도 안되는 인디언 학살명령에 대하여 정면으로 저항한 세 명의 장교가 있었다. 사일러스 소울(Silas Soule) 대위, 조셉 크레이머(Joseph Cramer) 중위, 그리고 제임스 코너(James Conner) 중위가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부하들에게도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후에 학살의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중 소울 대위는 후일 시빙턴을 추종하는 한 백인이 쓴 총에 맞아 숨졌다.



〈사일러스 소울(Silas Soule) 대위〉

11월28일 저녁 8시 시빙턴은 앤소니 소령 부대를 포함하여 약 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학살현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길 안내자로 69세의 혼혈 흑인 노인 백워스(James Beckwourth)를 데리고 갔으나 도중에 그를 버리고 한 농가에서 백인과 사이언족장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벤트(Robert Bent)를 붙잡아 강제로 길 안내자로 끌고 갔다. 공격은 이튿날 새벽에 일제히 시작되었다. 깊은 잠에 들어 있던 인디언 캠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은 주전자는 그의 천막에 워싱턴 방문에서 받은 성조기를 매달아 두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워싱턴에서 들었듯이 성조기가 걸려 있는 한 미군이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많은 인디언들이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피하여 검은 주전자의 티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시빙턴의 군대는 성조기 깃발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검은 주전자의 천막으로 피신했던 사람들도 황급히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샌드크리크에는 약 600명의 인디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남부사이언족이 대부분이었고 니윙트(Niwot) 추장을 포함한 아라파호족이 약간 섞여 있었다. 이날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사냥을 나갔기 때문에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광란의 살인극으로 인하여 남자 28명을 포함하여 133명의 인디언들이 사망하였다. 이런 종류의 대량 학살은 특정인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genocide)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참극의 실상이 정확하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번 인디언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전쟁행위로 인식되어 시빙턴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날 있었던



〈시빙턴(John Milton Chivington)〉

대학살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증언함으로써 진상이 하나씩 들어났다. 길 안내자로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끌려갔던 혼혈인 로버트 벤트와 역시 프랑스 아버지와 사이언족 어머니를 가진 혼혈인으로 샌드크리크 캠프에 머물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에드문드 게리에(Edmund Guerrier) 등이 후일 자세하게 그날의 참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시빙턴에 정면으로 항명했던 세 명의 장교들도 후일 군 조사기구와 연방의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세히 진실들을 증언하였다. 이 때 원콥 소령은 군 조사기구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원콥은 제대 후 1866년에 남부사이언과 아라파호족 인디언 담당 정부 측 주재원(agent)으로 활동하다가 1868년 12월에 와시타 강 전투에서 미군이 검은 주전자(Black Kettle)의 마을을 파괴한 데 대하여 항의하여 사직해 버렸다.

증언에 의하면, 인디언들을 사살한 후에도 시신에다 땀을 짓들을 저질렀다고 한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시신에서 성기를 도려내어 무

슨 전리품인양 가져갔다. 어떤 미군은 남자의 성기를 담배쌈지로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기도 하고 또 다른 미군은 여자의 성기를 막대기에 걸어 전시하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또한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여자의 성기를 도려내어 말안장에 걸치거나 모자에 장식품으로 꼽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들은 덴버의 아폴로극장이나 그 지역의 술집 같은 곳에 이러한 불쌍사나운 전리품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해 두었다고 한다. 소울 대위가 원콥 소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700명의 병력이 새벽시간에 무방비상태로 잠에서 덜 깨어난 600명의 인디언 그것도 대부분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측 사망자는 의외로 적은 편이었다. 아마도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면 거의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전혀 그렇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사격술도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 행군 도중에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채 술이 깨기도 전에 학살극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도 약 5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자기네들끼리의 사격 실수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7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 (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두머리인 풍월주들을 중심으로 당대 화랑도들의 생애와 실상을 기록하였다. 1대 풍월주부터 마지막 32대까지 그들의 생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들의 대부분이 당대의 핵심인물들인 관계로 곧 그들의 기록이 당대 신라 조정과 사회의 핵심 기록이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다른 사서에는 전혀 없는 저자인 김대문과 그의 가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화랑세기 속에 흐르는 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랑세기는 김대문 가문의 세보世譜/족보族譜 같은 느낌을 받게된다.

먼저 화랑세기의 후기後記를 보면 김대문이 말하기를 작고한 아버지 오기공吳起公이 오래전 부터 우리말鄕音로 저술을 했는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에 자신이 관원으로 공무수행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틈틈이 화랑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부친의 뜻을 잇고 화랑의 역사를 남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랑세기의 제1대 풍월주 위화랑魏花郎은 김대문의 5대조 할아버지이다. 위화랑의 부인 준실은 법흥왕의 후궁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화랑二花郎이고 그는 제4대 풍월주를 지냈다. 그리고 제2대 풍월주 미진 부공未珍夫公과 제3대 풍월주 모랑毛郎은 위

화랑의 사위들이다. 또한 제5대 풍월주 사다함斯多唘은 위화랑의 외손자이다. 위화랑으로 부터 시작된 풍월주의 직책을 제5대까지 아들과 사위 그리고 외손자 등으로 초창기 화랑의 우두머리는 위화랑(김대문의 선조)의 집안에서 독차지했다. 이렇게 화려한 세계世系가 김대문과 그의 아버지 오기공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제6대 부대의 미실의 영향 밑으로 갔다가 제12대 풍월주 보리菩利가 등장하는데 이 보리가 이화랑의 아들이다. 즉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친손자이다. 보리의 어머니는 숙명공주인데 법흥왕의 딸이다. 그가 진흥왕과의 사이에서 태자까지 생산했는데 이화랑과 정을 통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이들이 원광圓光법사와 보리이다. 원광은 김대문에게는 큰증조할아버지이고, 화랑의 ‘세속오계’를 지은 유명한 법사이다. 보리는 화랑의 풍월주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누이가 둘이나 진흥왕의 후궁인 관계로 수차례의 관직 제의가 들어왔지만 사양하였다. 보리의 아들 예원公禮元公(김대문의 조부)은 제20대 풍월주를 지냈고, 그의 아들 오기공吳起公(김대문의 부친)은 제28대 풍월주를 지냈다. 이렇게 김대문의 선대 5대가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를 지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할아버지 예원은 중시中侍(수상)에 임명되면서 그의 가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옴을 볼

수 있다.(문무왕11년, 671년)

152) 현존하는 향가는 25수이며 일연의 삼국유사에 14수가 있고, 혁련정赫連挺이 찬술한 균여전均如傳(원명 - 대화엄수좌원통양종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에 11수가 전한다. 균여전은 고려 초기의 승려인 균여대사(923 ~ 973)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다. 문종 29년(1075년)에 균여의 문도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대학자 혁련정이 엮었다. 어머니 점명占命이 균여가 어릴때 얼굴이 너무나 못생겨서 길거리에 버렸는데 까마귀 두마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그를 덮어 주는 것을 보고 회개하여 다시 집으로 데려다가 길렀다고 한다. 15세 때 출가하였으며 부흥사 식현 화상 아래서 수도하였다. 균여전은 총 10권이다. 균여가 향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를 지어는데 이 향가는 제7권에 실려 있다. 고려 제4대 왕인 광종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향가는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었다. 이 책은 향가11수가 실려 있는 관계로 삼국유사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 우리말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이장가悼二將歌도 향가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화랑세기의 두 수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향가는 총28수가 된다.

화랑세기에 대한 사료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가 보니 발견된 ‘필사본’의 진위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 간단하게 김대문이 화랑세기의 저자라는 내용과 서문에 나오는 ‘於是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어시현좌충신 종차이수 양장용졸 유시이생 -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 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겨났다)’이란 미사여구만 달랑 진흥왕37년조와 김흠운 열전에 두 번 인용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전하는 사서가 없으니 ‘점잔을 빼는’ 현대 사학자들이 그 책 속에 있는 일부 혼란스러운 성적性的인 내용을 받아드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향가 25수(152)에 비해 화랑세기에 전하는 향가 두 수는 너무 쉽다는 등이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김대문과 화랑세기를 삼국사기에서 재인용한 점을 보면, 물론 당시까지도 화랑세기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것 같다.

진위논쟁을 떠나서 화랑세기 필사본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당시의 발자취를 보게 된다. 이 책은 화랑들의 우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대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흉부 (폐)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면)	1. 갑상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밀도 검사 5. 대장내시경(수면)

80만원
남: 65만원 / 여: 75만원

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기본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뇌 MRA 2. 뇌 MRI 3. 관상동맥 CT 4. 흉부 (폐) CT 5. 심장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전립선 초음파 9. 골밀도 검사 10. 대장내시경(수면)	1. 뇌 MRA 2. 뇌 MRI 3. 관상동맥 CT 4. 흉부 (폐) CT 5. 심장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부인과(자궁) 초음파 9. 유방 초음파 10. 골밀도 검사 11. 대장내시경(수면)

230만원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당일 종합검진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흉부 (폐)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1. 갑상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밀도 검사

5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복부조영CT + 비타인D & 호르몬 +
호모시스테인(심혈관질환, 중풍원인인자)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고객 : 픽업서비스 제공

- ① 인천공항 픽업 : 인천공항 도착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제공
- ② 인천공항외 픽업 : 서울지역 내의 장소에서만 픽업 가능
- ③ 토, 일, 공휴일 픽업 진행 불가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즉제)
- 입원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1인실(세면도구세트, 즉제공)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2일)
1인실(세면도구세트, 즉제공) / 공항픽업
- VVIP 종합검진: 2pm~입원3일째 1pm(2박3일)
특실(세면도구세트, 즉제공) / 공항픽업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2008년부터 해외동포 건강검진 시행

대림성모병원

- ◎ 5개의 특성화된 전문 센터 구비
- ◎ 15개 진료과에 40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60여명의 의료진
- ◎ 메디컬 코리아 대상 : 갑상선 부분 5년 연속 대상 수상
- ◎ 약 2,500여명의 해외동포 및 외국인 검진 및 수술 경험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건강검진 안내

- ① Royal Gold 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 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 제공
- ④ Royal Gold 검진은 PICK UP SERVICE 제공 / ⑤ 검진시행부터 결과상담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Royal Gold 검진

남성 : 215만원 | 여성 : 225만원

입원 종합 검진

남성 : 64만원 | 여성 : 75만원

당일 종합 검진

남성 : 50만원 | 여성 : 60만원
(대장내시경 추가시 : 남성 60만원 | 여성 70만원)

특화 검진

- ▶ 뇌 정밀검진 : 92만원 (소요시간 1시간)
- ▶ 심장 정밀검진 : 17만원 (소요시간 2시간)
- ▶ 심장혈관 MD CT : 22만원 (소요시간 30분)
- ▶ 골다공증 검사 : 5만원 (소요시간 30분)

전문센터 및 주요수술

유방암갑상선 센터 / 소화기내시경 센터 / 척추관절 센터 / 중풍치매 센터
하지정맥류 · 다한증 클리닉 / 부인과 클리닉 / 복강경 클리닉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코리아
617.955.911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十 · 拾 (십)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十字架)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For whoever want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6장 24, 25절

19일 한국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 불법 시위에서 부상당한 백남기(68세)씨가 “위중하다”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백씨는 불법시위에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었던 것.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백씨가 부상당하는 동영상을 청문회장에서 직접 상영했다. 그는 “다쳐져 끌려가는 노인을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가서 확 몸으로 댄친다”고 했다. 이어 “백씨가 우측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저기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할려는데 굳이 (빨간 우비 청년이)가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게 상해의 원인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철저히 수사해 보라”고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철저히 수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폭력시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철래의원은 “지난 14일 이뤄진 폭력시위를 직접 봤느냐”며 “검찰 총장 후보자로서 앞으로 폭력시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평소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향해(물대포)를 쏘면 중상을 입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수남 검찰 총장 후보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가족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을 것

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覆面) 시위대였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시위자는 하나같이 마스크나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검은 복면에 고글까지 쓰고 새총을 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피해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다.

독일은 1985년 형법을 바꿔 복면 시위 집회를 형사 처벌한다.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의 15개주 역시 복면시위가 금지된다. 한국도 17, 18대 국회때 복면시위 금지법이 세 차례 발의 됐으나 모두 폐기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집회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폭력시위대의 복면을 꼭 벗기는 법조항을 만들 때가 왔다.

십심: 數名수명 · 열십. 十道십도: 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十字架)의 길” 이심을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아버지 하나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 요한복음 14:6, 7.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 또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道),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Death), 부

활(Resurrection), 재림(Returning Again)을 뜻한다.

해서 바울(Apostle Paul)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道)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not with words of human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power of God.” (고린도전서 1:18, 19)

이 십의 도(道)는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밝히신다. 십자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세로대(丨)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 곧 ‘이웃과 이웃 간의 평행’ 연결 가로대(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 마가복음 12:30, 31.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십자가 사랑’의 명확한 기틀, 이 십사랑의 기틀만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포함하는 것임을 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십사랑”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The crown of eternal life)과 직결돼 있다는 것.

본지 보스톤 코리아(The Boston Korea)가

바로 이 십자와 직결돼 각계각층에서 창간 십주년을 축하해준다.

장명술 창간 및 발행인의 회고에 의하면 교민들의 “한인들의 소통과 교류에 온갖 고난과 힘든 일에도 기쁨과 보람을 느껴 왔지만 뜻하지 않게 보도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罪責感)에 시달려 자신을 미워하기도” 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十日(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冕旒冠)을 네게 주리라: Do not be afraid of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I tell you, the devil will put some of you in prison to test you, and you will suffer persecution for ten days(十日).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拾: ①十도십야 - 열십 ②收也수야 - 주을습 ③雯: 雲成章운성장 - 구름문채문.

이렇게 여러가지 뜻을 동시에 품고 있지만 열십+자로의拾은 ①扌=手손수와 합쳐져 「뜻은 열 손가락이 합쳐진 十을 상징」하므로 열(十) 손가락의 기능이 다 각각이지만 손목에 붙어 협력하게 된 것.

해서拾은 “인자 예수님(人) 안에 있는 하나님 뜻(旨)을 열 손가락의 기능: “하나님 사랑(丨)과 이웃 사랑(一)”으로 영원한 생명 곧永生(영생)으로 연결되는 영역(靈役)을 불러 성령(聖靈)님과 연대한다.拾은...

까닭에 “十”과 “拾”은 우리 인생의 오늘과 내일, 현생과 영생을 싸매여 주는 진리의 동행자(同行者)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니깐.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전원스위치, 충전스위치, 볼륨다이얼, 숫자버튼, 비상연락 버튼, 반복듣기, 전원, 미전류파수, 발파검지기, 재생/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발파검지기,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8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배상음원인 기능
- 말하식 리콜이른 슬립메모리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와 호환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채널
- 핸드스토폴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로로
• 성경 송파파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박집)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SBS tvN Mnet Olive OCN STORY LINE DaStyle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8) 은퇴자들의 재정계획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다음에 노후자산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준비를 하거나 혹은 은퇴 생활하는 동안 실수해서는 안 되는 재정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노후연금(Social Security) 신청을 너무 일찍**

노후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나이(FRA, Full Retirement Age)는 66 혹은 67입니다. 노후연금을 62 때 신청하면 30%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가상승으로 노후연금이 증가(cost-of-living)해도 받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므로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66에서 70까지 노후연금을 연기하면 매년 8%씩 더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방법**

여러 가지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투자할 때 매우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CD, 단기간 채권, 머니 마켓,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은퇴 기간이 일한 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매년 상승합니다.

은퇴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투자를 선택한 은퇴자는 살아 있는데 은퇴자금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상승 무시**

물가상승이 3%라고 가정하면 약 20년 후 소중한 은퇴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의료비 등으로 생활비는 증가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최소 물가상승보다 더 돈이 불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하고 적은 돈이라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음**

은퇴설계 전문가는 은퇴자금을 어떠한 식으로 투자하는가는 물론 은퇴생활비, 세금, 보험, 상속, 등 돈에 관련된 전체를 보며 손님들에게 객관적인 의견과 투자 조언합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본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은퇴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노후자금이 적든 많은 정해진 액수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 경비 무시**

2014년에 은퇴하는 부부의 의료경비로 \$220,000이 필요하다고 피델리티 회사(Fidelity Investment)에서 발표했습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은퇴하는 부부에게도 이러한 의료 경비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내년(2016)에는 노후보험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인 의료보장(Medicare)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저축

(HAS, Health Savings Account)에 투자하면 세금혜택과 찾을 때 의료비로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생각**

은퇴자금(401k, IRA, TSP, 403b, 등)에서 나오는 돈은 그해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Annuity, 노후연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할 때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은퇴해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획 없는 은퇴 생활비(retirement income strategy)**

투자자 대부분이 어디에 어떠한 식으로 투자(잘했든지 혹은 못했든지)하는 것만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노후자금에서 어떠한 식으로 돈을 꺼내는가(distribution)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아직 살아 있는데 노후자금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민 소식 (2015년 11월 셋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 취업영주권

취업 5순위 (투자영주권)의 종류 중 하나인 Regional Center Program의 법적 한도가 이번 12월10일로 만료됩니다. 국회에서 이 program에 대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으나 11월 19일 현재 국회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Regional Center Program은 더이상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되며 Regional Center에 투자하셔도 더이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가 Regional Center Program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이미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로 I-526 (투자영주권의 첫단계)를 승인받으셨더라도 이민비자 발급이 오는 12월11일로 중단됩니다. 또한, 12월11일 이후에는 I-485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몇몇 매체들은 곧 Regional Center Program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12월10일 이전에 투자를 해야한다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국회가 연장기한을 넘기면 넘기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Regional

Center Program 자체가 없앨 가능성은 무척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투자를 서둘러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DACA & DAPA 중지명령

2014년말 17주 (실제로 Texas 주가 주도적 역할을 함)가 연합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므로 이 명령에 대한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차후에 10개 주가 더 가담해서 총 2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시장과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포함한 31개 시가 오바마 행정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등 양쪽의 의견이 대립해왔으나 올 2월 연방법원은 27개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DAPA)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에 대한

확대에 대한 시행이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즉시 항소 했지만 몇일전 연방법원은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들에게 DACA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DAPA)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31살 나이 제한(2012년 6월 기준)을 철폐하고, 혜택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혜택을 보기 위한) 기존의 2007년에서 2010년 1월 1일로 늦춰주는 Expanded DACA도 이번 중지명령으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케이스를 대법원까지 끌고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보입니다. 이는 행정명령 내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명령이 삼권 분립 등 여러가지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행정명령 반대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법원에서도 쉽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대했던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주어질 추방면제와 노동허가의 실현과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DACA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DACA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와 연장은 기존과 같이 계속 실행되고 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for Physicians

지난 1999년부터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것에 동의하는 Physician들에게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NIW로 영주권을 신청을 허용했습니다(PNIW).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해제했고 이에 이민국도 PNIW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방정부가 지정한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서 의 근무로는 이러한 PNIW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오직 Veterans Affairs facility라고 불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만 PNIW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100세 동반자 베델헬스전자

FUJI 의료기 안마의자
일본 1위
GfK JAPAN 공식 집계
일본 안마의자 부문
Market Share 1위

Happy Thanksgiving

" 마사지체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의료기입니다
50여년간 개발된 명품 안마의자를 체험하시고 선택하세요 "

마사지체어 추수감사절 대세일

이제 마사지체어는 온가족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성능을 꼭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세요

마사지 체어 구입시
발맞사지기

무료 증정

단체 선물용 소형 안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 상주로
(Part & Labor)

최대 7년 / Full Warranty



INADA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미동부공식 대리점

맛사지체어 판매개시

Dream Wave
Massage Chair



Inada Flex 3s
Massage Chair



~~\$7,999~~
\$4,999
Made in Japan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맛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Fuji Cyber Relax
FJ-3650B



36개월
\$80/월
3년 Warranty

조작이 간편하여 효도 선물로
개발된 신제품, 4개의 마사지 볼로
강력한 전신 마사지 체어

Fuji Cyber Relax
EC-3800



60개월
\$120/월
7년 Warranty

세계최초 4D 방식, 초정밀 마사지 기법
통증병원 치료용

Fuji Cyber Relax
ZERO-G
FJ-4600B



60개월
\$100/월
5년 Warranty

3D 방식 태국, 일본, 중국, 한국 전문 마사지
기법, 한국인들에 가장 인기 많은 제품

Fuji
Cyber Relax
FJ-5500



60개월
\$100/월
5년 Warranty

L자형 마사지 기법,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마사지 볼이 자동됨

Panasonic
EP-MA73



60개월
\$125/월
7년 Warranty

ULTRA 3D 방식, 다각도 마사지를, Multi
Heat 기능, Hot Stone 치료기법

Panasonic
EP-MA70



60개월
\$110/월
5년 Warranty

3D 방식 에어 마사지기법과
스츠레칭 기법

Body Slimmer
Special Sale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ni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7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입구 높이
조절기능



특별세일
\$600 → \$450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888-809-1167

하이트론스
HI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417-5350 / 201-941-0024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전쟁 (1) 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이 묵인한 폭력을 기억하라

세계 제 2차 대전 개전이 다가오고 있던, 1938년 11월 9일 밤, 독일 전역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한 대규모의, 고도로 조직화된 폭력이 자행되었다. 청년 나찌들이 총 250개가 넘는 시나고그 (유대교 회당)을 파괴하거나 불태웠고, 유대인 가정집들을 약탈했다. 그날 밤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된 유대인들 중 수 십 명은 사망했다. 이들은 유대인 상점도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7,000개가 넘는 유대인 상점이 약탈과 파괴, 방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밤 나찌 대원들의 광기 속에 처참하게 산산조각 난 상점의 유리의 파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수정처럼 반짝였다. 수정의 밤, 혹은 깨진 유리의 밤이라고 부르는 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 사건이며, 2차대전 기간 나찌의 홀로코스트의 전주곡이다.

크리스탈나흐트는 표면상 사건 3일전인 11월 6일, 프랑스에 거주하던 한 유대인 청소년이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 공무원 에른스트 폰 라트를 권총으로 테러한 데에 대한 독일 시민들(이라고 쓰고 나찌 돌격대라고 읽다)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응징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자발적 폭력 행사는 사실 나찌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성질이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에른스트 폰 라트가 이를 뒤 사망하자, 당시 나치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는 짹 짹, 그리고 영리하게, “유대인들도 독일인들의 분노를 느껴야할 때” 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나찌의 반유대주의 선동의 도구

로 사용했던 것이다. 괴벨스의 선동 속에는, 어린 소년이 권총을 집어들게 만든 나찌의 유대인 탄압이나 부당한 강제 이주 정책은 생략되어 있었다. 대신에 유대인 전체가 독일의 외부이자 악마와 동일시되었고, 역으로 반유대 정서와 행동은 모국 독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증명 등과 동일시되었다. 1938년 11월 9일의 집단적인 “반유대 행동”은 그렇게 조직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비-유대계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한 광기에 가까운 폭력에 직접 행동대원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나찌 돌격대로서 크리스탈나흐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 시민들이 크리스탈나흐트의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의 반응이다. 많은 비유대계 독일인들이 “저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제거되어야 하니까” 라는 식으로 이미 벌어진 집단 폭력 대해 나침의 합리화를 해버리곤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유럽에서의 반유대정서는 2차 대전 발발 무렵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물론 아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생겨난, 예수를 못박은 민족이라는 낙인과 증오의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산자(Diaspora)의 위치에 서도 유대교 전통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하던 탓에 사회적,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탓도 있다. 카톨릭은 타부시하는 대부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덕에 상당한 부를

갖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때문에 유대인 전체에게 탐욕이라는 편견을 덧씌우기도 했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은 게토(Ghetto)에 격리되어 거주해야했다. 때때로 대량 학살이나 린치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찌의 유대인 박해 역시 유럽에 뿌리박힌 반유대정서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나찌는 유대인이라는 타자를 설정함으로써 독일 내부의 불만과 문제를 외부로 전가하고, 비유대 독일인들을 나찌의 선동 아래 결속시켰다. 희생양을 의미하는 scapegoat는 고대의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땃가의제물로 양이 바쳐졌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양”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정부가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국가 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림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찌가 그랬다.

1930년대 독일은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었다. 당연히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바로 이무렵 정치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히틀러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함과 영광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경제의 문제를 독일내에 존재하는 다른 민족, 유대인들에게 전가했다. 나찌가 만들어내는 게르만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인종적 편견이 강해질수록, 설령 그것이 허상이라 할지라도, 나

찌는 강해졌다. 게르만족이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책이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잠식했다.

크리스탈 나흐트를 목격하던 많은 비유대계 독일인들은 “안타까운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 수십만명을 추방한) 덕분에 높은 실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히틀러가 독일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워주었고...” 하는 식의 합리화로 사건을 회피했다. 나찌의 반유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애국적인 행위로 매도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을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려는 한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해서 국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올바른’이라는 가치 판단은 누구의 이해와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나찌도 그랬다.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면서도, 독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서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 붙였다. 타자의 억압에 의해 이루어질 독일의 영광은 그 자체로 올바르다는 생각, 그 무서운 독단이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내 나라, 내 모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제발이지 올바른 것은 한가지라 주장하여 북한의 일당독재나 나찌즘을 벤치마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기

경기 회복세 힘입어 너도나도 ‘손질하기’

주택 유지보수 시장이 활기를 띠며 200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유지 보수 업체가 좋은 영업성적을 이어가며 선전하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건축자재 인테리어 도구 판매업체인 홈디포는 24일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또 주택 리모델링 용품 업체인 로우스(Lowe's)가 25일 공개한 실적도 시장전망치를 웃돌았다. 홈디포와 로우스의 선전은 최근 주택 유지보수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WSJ는 “지난 25일 상무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다소 실

망스러운 수준이지만 미국인들이 주택과 정원을 유지보수 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이전 수준의 금액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택 거래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택 유지보수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2-3년 전까지는 주택 판매 건수와 주택 개보수 용품 판매 매출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함께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질 주택 개보수 용품 매출에 부합하는 10월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700만 건이 되어야 하지만 10월에 집계된 실제 판매 건수는 이보다 약 14만건이 적었다.

이 같은 추세는 살고 있는 집을 더 멋지

게 꾸며서 팔려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당장 매물로 내놓기 보단 리모델링을 한후 비싸게 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한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리모델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4년 전 숯세일로 저렴하게 구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택 가치를 높이거나 값을 올려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며 “한인들은 주로 벽을 없애고 거실을 넓히거나 방을 하나 더 만드는 등 실속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형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생선가게 연매상 \$500,000 변화한 플라자 성업중인 가게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턴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여카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9(일)
1. SAT I Class
12월, 1월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종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및 경시대회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출문제 풀이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